# 문화와 삶,

2009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 사랑방에 빠지다

## 사랑방문화클럽은...

사랑방문화클럽은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이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시민주도형 네트워크 정책사업이다. 성남문화재단은 '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다!'라는 모토로 3단계 15년 중장기 문화도시 정책을 2005년에 입안하여 추진 중이며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1,103개의 시민 문화예술 클럽을 발굴하여 네트워크하고, 클럽들은 스스로 뽑은 운영위원회와 실행팀을 통해 클럽축제와 문화공헌 프로젝트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문화와 삶, 사랑방에 빠지다

**발행인** _ 이대엽 · 이종덕
**편집인** _ 노재천
**기획총괄** _ 박승현
**기획진행** _ 고성영

**발행일** _ 2010. 2
**발행처** _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clubsb.or.kr

**글** _ 이선희
**사진** _ 조영상, 고성영, 줌인세상, 포토아카데미
**북디자인 · 인쇄** _ 맥스커뮤니케이션

ⓒ 성남문화재단

# 문화와 삶,

2009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 사랑방에 빠지다

시민 문화예술의 선구자,
생활문화공동체 창조자
사랑방문화클럽

## ‡ Prologue | 여는 글 ‡

현대 예술의 거장이며 백남준과 절친한 우정을 나누었던 독일의 예술가 요셉 보이스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학생이며, 모든 사회적 변화는 '창조'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술은 전문인들의 전유물이며, 일반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만든 예술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면서 나의 일상적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은 전문예술에서 생활예술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랑방문화클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변화의 세계로 뛰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변화의 과정과 완성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변화 과정에 동의하고 그 변화의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은 그 변화의 찾아가는 선구자의 위치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싯점에 그 변화의 완성된 모습을 굳이 찾아본다면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예술적 역량을 키워 삶의 질을 높이며,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소통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이웃간의 정을 되살리고자 하는 생활문화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주공간이 바로 생업공간이었던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품앗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생활문화공동체가 형성되었지만 거주공간과 생업공간이 분리된 현대 사회에서 지역을 단위로 한 공간을 중심으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은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생활문화공동체는 굳이 거대한 담론이나 정책적 개입이 없더라도, 자발적인 주체에 의한 태동과 발전이 가능하며 자생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은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서히 '생활' 단위로써의 '동네'의 공간적 측면을 부각시켜 각 개별 단위의 동네 주민들과 연계하고, 나아가 신도심(분당 · 판교)과 본도심(수정 · 중원)을 연결하여 성남이라는 도시를 생활문화예술공동체가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때 사랑방문화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은 바로 향기있는 문화도시 성남의 생활문화공동체의 창조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방문화클럽은 그 창조적 역량을 점점 배가하여 사랑방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남의 시민 문화예술 활동은 이미 우리나라 전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문화클럽포럼을 통해 지구촌의 시민문화클럽활동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2단계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 오케스트라가 성남에서 모이고, 세계의 문화클럽들이 탄천변에 모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예술을 누리며 창조하는 그날을 위해 땀흘리는 문화예술 시민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사 장 이종덕

# 사랑방의 노래

## ‡ Poem | 사랑방의 노래 ‡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의 모임이 있다네.

그 모임에는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주인공이 없다네.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 준다네.

시민들은 100년 후를 노래한다네.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창조가들이 탄생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랑방 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네.

‡ Contents | 차례 ‡

여는글 시민 문화예술의 선구자, 생활문화공동체 창조자 사랑방문화클럽 • 06
사랑방의 노래 • 10

## Part 1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2009 주요 발걸음

사랑방, 새빛들다. '2009 워크숍' • 16
사랑방, 두드리다. '2009 출범식' • 46
사랑방, 소통하다. '세계문화클럽포럼' • 58
사랑방, 펼치다. '2009 사랑방문화클럽전' • 64
사랑방, 기억하다. '2009 활동보고회' • 66
사랑방, 넘실대다. '2009 문화통화' • 76
사랑방 대화 '임기용 운영위원장 인터뷰' • 80

## Part 2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2009 문화공헌프로젝트

성남의 문화예술 클럽은 모두 모여라! • 86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설명회 • 86
사업계획서 신청 • 90
심사 및 발표 • 92

열림, 나눔, 감동을 위한 13개의 기억들 • 96
이매문화원(이매동 팀) • 98
아름다운 동행(전시팀) • 102
마을문화사랑방(수진동 팀) • 106
수내여울(수내동 팀) • 110
새터랑(정자동 팀) • 114
문화나눔(수정구 · 중원구 팀) • 120
사랑방밴드(락밴드 팀) • 126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야탑 · 금곡동 팀) • 132
구미동 사랑방문화클럽(구미동 팀) • 138

무빙사운드(서현동 팀) • 142
인의예지(전시팀) • 146
사랑의 힘(전시팀) • 150
찾아가는 문화특공대(문학 · 클래식 팀) • 152

## Part 3 사랑방 홀릭에 빠진 사람들

종이 울렸다. 자율학습은 공연 중. (박병준, 심원보, 김우중) • 158
노노소소 부부자자. (하옥남) • 170
사랑방오케스트라의 꿈. (이정구) • 176
인생 3막을 색소폰으로 열다. (김경환) • 186
나는 단지 자유롭고 싶었다. (조순희) • 194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병량) • 200
최면에서 벗어나 그림을 만나다. (안윤환) • 210
누드 그리는 할배. (이관배) • 220
두렁두렁, 문화 울타리 치자. (문정숙) • 226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백만기) • 236

## Part 4 사랑방문화클럽 형상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길을 열다! • 244

정관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정관 • 262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 2009 주요 발걸음

# part 1

씨앗은 처음부터 하늘 높이 뻗은 우듬지를 상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흙 알갱이만큼 작던 씨앗은 하루하루 소박한 성장의 꿈을 꾸며
조금씩 자신을 키워나갈 것이고, 매일 조금씩 자라난 그 성장이 1년, 2년 나이테를
한 줄씩 더 쌓으며 언젠가 뿌리 깊은 나무의 우듬지를 탄생시킬 것이다.

작은 씨앗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할 내일을 꿈꾸며 2009 발걸음을 내딛다!

# 사랑방, 새빛들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2009워크숍

## 사랑방의 첫 인사

아침까지는 하늘이 찌뿌두둥해 꼭 비가 올 것 같더니 오후 들면서 하늘은 맑게 개었다.
워크숍이 열리는 곳은 양평리조트. 그곳으로 떠날 참석 회원들이 오후 1시가 되면서 약속 장소인 성남 아트센터 앞에 모여들었다.

time : 2009년 2월 7일(토)~8일(일)

place : 양평리조트(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예년과 같이 선발대인 곽윤부 부위원장과 재단의 유상진 과장이 워크숍 장소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12시 쯤 먼저 출발하고, 모든 참석 인원은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각각 1시 20분, 45분에 출발했다.

남한강변을 따라 차를 달리다가 양평읍 옥천면 이정표를 지나 약 1km 정도 더 가다보니 하얗게 눈이 덮인 넓은 잔디공원과 강변을 바라보고 서있는 리조트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토요일 오후라 정체가 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버스 두 대 모두 예정 시간보다 20분정도 빠른 2시 40분 쯤 도착했다.

올해 워크숍에는 44개 클럽 97명이 참석해 작년(38개 클럽, 60명)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재단 직원 8명(?)을 더해 총 105명의 사람들은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약 20분간 강변에서 심호흡을 하며 짧은 자유시간을 가졌다.

오후 3시가 되어 세미나 장소로 들어가니 정중앙에 걸린 커다란 사랑방문화클럽 현수막이 먼저 눈에 띄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숙소를 배정하고 낯선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기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곽윤부 부위원장의 유머 넘치는 사회로 진행된 레크레이션은 신규클럽과 기존 클럽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짧게나마 서로 서먹했던 마음을 트는 즐거운 시간이 됐다.

## 2009 사랑방문화클럽의 사업방향

시계가 4시를 알리면서 드디어 2009 워크숍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레크레이션 때와는 사뭇 다르게 어느새 진지해져 있었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임기용 운영위원장과 재단의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이 간단한 인사말로 본격적인 식순을 연 후, 한국종합예술학교 전수환 교수가 소개됐다. 전 교수는 그동안 성남의 문화클럽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해오며 사랑방문화클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날 그는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예술 마케팅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50여분간 사랑방 문화클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다음으로 임기용 위원장이 다시 무대에 올라 2009년 사랑방 문화클럽의 사업 방향 및 사업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재단과 운영진들이 지난 경험을 토대로 오랜 숙고 끝에 설정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2009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
2009. 2. 7(토) ~ 8(일)
성남문화재단

## 2009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방향

그동안 사랑방 문화클럽은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클럽 간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헌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왔다.

그 성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 속에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새로운 예술 창조로서 사랑방문화클럽의 성과는 성남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 문화예술인들에게 크게 각인되기에 충분했다.

해가 갈수록 성남시민들의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들의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발을 맞은 2009 사랑방문화클럽.

큰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꼭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사랑방문화클럽 또한 기대만큼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있다.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3년간의 활동 속에서 지치고 의욕을 잃은 클럽 회원들에게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확신과 보람을 다시 심어주는 일이 중요했다. 그래서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의 주요 사업방향은 클럽회원들이 먼저 즐거움과 보람을 만끽하고 전망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이를 위해 '클럽을 위한 사랑방문화클럽'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사랑방문화클럽' '문화로 공헌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성남시 문화예술커뮤니티로서의 사랑방문화클럽' 등 크게 네 가지 큰 사업방향을 설정했다.

**❶ 클럽을 위한 사랑방문화클럽**

- 클럽의 만남, 연습,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
- 클럽에게 필요한 장비 대여
- 회원들을 위한 일상적 마스터 클래스 진행
- 공헌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보상 및 혜택 제공
- 강사 육성 및 교육 기회 마련

**❷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사랑방문화클럽**

-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동네 문화예술 클럽 지원
- 동네별 사랑방 공간 마련
- 동네별 작은 마을 축제 추진
- 동네별 클럽 간 교류 확대

**❸ 문화로 공헌하는 사랑방문화클럽.**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활동(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
- 정기적,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문화 복지 시스템 마련
- 성남시 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추진

**❹ 성남시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랑방문화클럽**

- 기관, 시설, 기업, 동네, 학교 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네트워크 마련
- 문화 예술 강사, 기획자 등 전문예술가 지원 네트워크 마련
- 장르별, 지역별 다양한 문화예술 클럽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
- 성남시 생활문화예술 커뮤니티로 안정적인 운영 및 조직체계 구성
- 문화통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
- 장르별 전국단위사업 및 국제심포지엄 등의 해외 네트워크 단초 마련

임 위원장의 발표에 이어서 이상훈 기획팀원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원도희 기획팀장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가 참여하지 못하게 돼 이상훈 기획팀원이 그 발표를 대신했다.

## 2009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방향

박승현 부장은 미리 준비해간 자료집을 토대로 사업의 개괄적인 설명을 해나갔다.
그는 2009 문화공헌프로젝트에서는 우선, 2008년도 팀별 문화공헌 활동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동네별 클럽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클럽 역량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클럽간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문화 복지 공헌 및 동네 문화예술 커뮤니티와 연계된 지역사회 문화공헌 활동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남 문화통화를 접목한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여 문화공헌 활동에 참여한 클럽 및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서 2008년 진행됐던 문화공헌지원 프로젝트 사업 내용과 결과를 각 팀별로 직접 소개하는 것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저녁메뉴는 리조트 안의 한식당에서 준비한 동태전골은 무겁고 진지했던 분위기 속에서 다소 긴장됐던 회원들의 마음을 뜨끈하게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 2009 사랑방을 위한 솔직 담백 제언들

저녁식사 후 8시가 되어 사람들은 다시 세미나실로 모였다. 2부는 토의로 진행되었다. 지역중심으로 8개 팀이 구성되어 각 팀들은 2009년 사업 방향과 문화공헌프로젝트를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 제 1팀 의견 모음

**참가자명(총 8명)**

임기용(분당색소폰클럽), 고영신(고은이오), 곽덕희(모사모), 하옥남(미멜만돌린), 김금지(분당만돌린), 이영지(글로리앙상블), 김일식(클래식음악이있는곳), 박지훈(사랑방전문위원)

## Q. 각 클럽별로 '2008년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사업평가를 해본다면?

(1팀 참가클럽은 모두 사랑방클럽지원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었다)

- 사랑방문화클럽에서 강조하는 점이 클럽들 간의 소통과 협조인데, 실상은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다른 클럽의 공연도 끝까지 감상해주고 행사 마무리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클럽들이 서로 수고했다는 격려를 해주면 참여한 보람도 더 커지고 그만큼 성취감도 높아질 거라 생각된다.

- 클래식 음악 감상이라는 장르가 공연이나 전시에 잘 녹아들지 못한채 팀 행사에서 마치 들러리 서는 듯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앞으로는 클래식 음악감상의 특성을 살린 장소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에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기껏 무겁고 개수도 많은 악기들을 기껏 힘들게 운반해서 무대 위에서 아주 잠깐 연주하고 내려오면 마음이 무척 허탈하다. 허탈한 마음이 들다보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 각 클럽의 독자적인 공헌활동에도 홍보나 지원을 해주어 사랑방 문화공헌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홍보와 집객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클럽들은 대상에 맞는 레퍼토리를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 2팀 의견 모음

**참가자명(총 11명)**

김임진(한지뜨락), 권영숙(민요사랑), 김귀옥(분당만돌린), 김기덕(늘푸른 색소폰앙상블),
이영기(성남아코디언 동호회), 이명예(분당요들클럽), 정은정(미즈잉글리쉬), 신양재(로망스기타합주단),
김진한(성남분당사진사랑), 이영숙(신문지공예), 신효진(성남문화재단 연구원)

## Q. 2008 문화공헌지원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바라는 점은?

- 문화공헌행사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 클럽 내 자체 행사나 내실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클럽 역량보다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었다.
- 공헌프로젝트 설명회의 대상이 클럽지기로 국한되고 일회성으로 진행되다보니 클럽 내 다른 구성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해 결국 불만이 많아지고 클럽지기의 역할은 더 힘들었다.
- 홍보를 일괄적으로 재단이나 기획팀에서 전담해서 맡아줬으면 한다.
- 일방적인 통보식의 행사진행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 음악관련 클럽의 공연시, 음향 장비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 동네 단위의 클럽들이 한 팀을 이뤄 자신이 속해있는 동네에 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공헌 횟수는 5월에서 10월까지 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3회 중 2회는 동네에서, 남은 1회는 자신의 동네 외 지역에서)
- 주민자치센터와 긴밀히 결합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 동네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제 3팀 의견 모음

**참가자명(총 10명)**

유명헌(수묵향기), 문정숙(두렁), 박선희(신문지공예), 조성임(한지마을), 정송묵(원음합창단),
민봉기(성남6mm), 이상열(성남판소리), 장용길(늘푸른색소폰), 백현주(그날이오면), 이상훈(늘봄)

## Q. 공헌활동 및 전체적 운영 방안?

- 팀 구성 시 클럽의 특성을 배려하고 팀별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 동네별 교육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클럽이 생활하는 공간과 결합하기를 바란다.
-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 클럽지기들은 이해의 폭이 있으나 회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회원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 홈페이지를 통해 클럽의 특성과 활동 등 소식과 정보를 적극 교류하자.
- 각 구별로 사랑방 같은 카페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일상적으로 어울리면서 전시, 공연, 만남 등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자.

## 제 4팀 의견 모음

**참가자명(총 8명)**

이명화(미멜만돌린), 이병석(풀잎소리), 김선희(모사모), 이정구(팬오케스트라), 홍연분(글로리앙상블), 최희영(한지마을), 곽윤부(우리마당), 유상진(성남문화재단)

## Q. 문화공헌지원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재단과 클럽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은?

- 관객 및 동네 주민과의 소통 및 행사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 행사 멘트, 표정, 언어구사 방법, 관객과의 피드백, 호응 및 참여 유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특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 재단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은 문화통화로 수강하도록 하자.
- 음악클럽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연합공연을 하면 많은 홍보와 이슈 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 관(통장, 반장, 반상회)을 이용하여 사랑방문화클럽을 홍보하고, 아파트나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신청 받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 홍보를 위해 재단은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각 클럽은 해당 활동 지역의 행정 조직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자.
- 클럽이 활동하는 지역 및 생활지역 주변에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경우, 이를 재단에 알려서 시에 사용 허가와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
- 사랑방문화클럽 지기들이 각 클럽의 회원 정보를 정리해 재단에 제공하고, 재단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문자 및 메일로 발송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자.

## 제 5팀 의견 모음

**참가자명(총 10명)**

이인호(성남누드크로키), 김자숙(예다움), 장계석(동네사람들), 이문자(팬오케스트라연주회), 김양순(미즈잉글리쉬), 한병조(성남탄천문학), 권효선(글로리앙상블), 이관배(성남 6mm), 강지숙(청실홍실), 박승현(성남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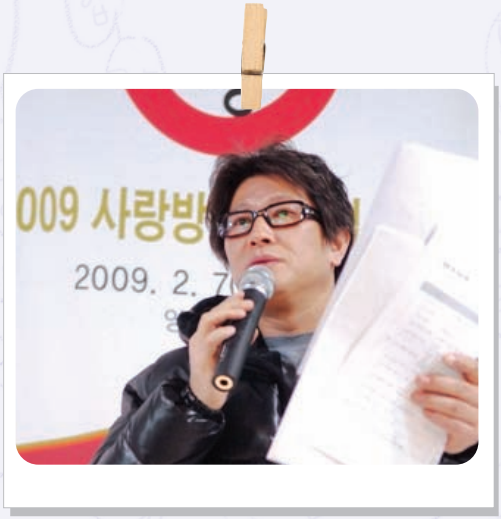
## Q. 사랑방문화클럽을 위한 제언?

- 홍보에 힘써서 많은 시민들이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탄천변의 공연장은 이미 구미동 동네사람들을 기반으로 많은 공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구미동을 거점으로 핵심적 축이 될 수 있는 클럽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 클럽지기들은 이해의 폭이 있으나 회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회원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 성남 6mm와 청실홍실처럼 초창기부터 사랑방문화클럽에 적극 참여해온 분들은 사랑방문화클럽에 담긴 정신을 매우 정확히 알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사와 기획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 제 6팀 의견 모음

**참가자명(총 10명)**

홍기출(풀잎소리), 이미영(예다움), 유영식(풀잎소리), 이성녀(샤론클럽), 조선형(성남탄천문학),
이신영(고은이오), 김선천(분당요들클럽), 김종남(성남6mm), 안윤환(분당중앙수채화), 김주영(늘푸른색소폰)




## Q. 동네 주민들의 팀 행사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제안은?

···› 1안) APT와 APT사이 산책로에서 공연 (산책로여행)
: 사랑방 문화클럽이 탄생한 성남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는 이매촌을 선정하여 활동.
2안) 탄천변을 따라 작은 공원에서의 공연 (탄천여행)

···› 각 클럽들이 아파트 부녀회를 통하여 사전에 아파트 문화공간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교육을 받은 동네 주민들이 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의 사랑방 문화 클럽의 전시활동과 더불어 지역 APT주민의 작품 또는 기념품들을 함께 전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을 유도한다.

···› 공연에서 음악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을 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 제 7팀 의견 모음

**참가자명(총 9명)**

김은수(모사모), 이복(예다움), 배명숙(성남분당사진사랑), 송미숙(그날이오면), 서혜숙(성남판소리), 김명옥(성남탄천문학), 윤혜숙(늘봄), 김숙자(고은이오), 김광우(성남아코디언동호회)

## Q. 2009년도 문화공헌 참여방안?

- 사랑방문화클럽에 공연 클럽이 많아서, 행사도 공연 중심으로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처럼 공연중심의 행사를 하면 소외되는 장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하루 2시간 가량 공연을 할 때, 전시나 문학클럽들은 무엇을 해야 할 지 난감하다. 이런 의미에서 공연 이외의 다른 장르 중심의 행사도 계획하고, 그 속에서 공연클럽이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 성남은 60년 말부터 현재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성남의 과거 동네 모습과 현재, 미래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사진으로 보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기획했으면 좋겠다. 이 기획에서 미술클럽과 사진클럽은 동네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문학클럽이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사무소나 동네 교회 등 공공장소에서 전시회를 하고 이 때 공연클럽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 찾아가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와 문학, 미술과 음악이 어울리는 작은 음악회나 전시회, 시낭송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성남아트센터와 연계하여 올 10월 성남아트센터의 '남한산성' 뮤지컬 공연 전에 장르별로 남한산성을 주제로 공연과 전시, 문학회, 답사 프로그램 등을 구상해보면 어떨까.

## 제 8팀 의견 모음

**참가자명(총 11명)**

이연주(서각마을), 박미영(대원묵향회), 오종실(성남판소리), 양희정(쁘니), 김희주(성남판소리), 이석우(그날이 오면), 김상섭(신문지공예), 정광국(7080화음사랑), 박정숙(쁘니), 이정애(수묵향기), 김정은(성남문화재단)

## Q. 주민과 어우러지는 원다방 라디오 스타 만들기

- 장소 : 상대원 '원다방'에서
- 대상 : 상대원 시장 주민+상인+클럽회원
- 계획 : 주 1회씩 팀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위 대상자들에게 교육한다.
  (예상 교육프로그램 : 판소리, 노래교실, 기타, 신문지 공예, 수묵화, 여행 등)
  :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월 1회 발표회 개최한다.
  : 9월에 상인회와 협약하여 '원다방 축제'를 추진한다.
  : 원다방 교육과 축제를 통해 발굴된 인재를 사랑방 클럽 축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시, 파이팅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약 1시간에 가까운 열띤 토론 과정에서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각 팀원들의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방 1호 만나교회 박상규 목사 또한, 앞서 각 팀원들이 토론을 거쳐 발표한 내용들을 함께 들으며 향후 사랑방의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뒤이어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과 임기용 운영위원장도 2008년 모든 클럽의 구성원들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을 발전시키는 건강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발표와 평가를 마치고,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진을 소개하는 순서만 남았다. 정관에 의거해 곽윤부 부위원장과 박종대 위원은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쳐 자동으로 물러나고, 박병준위원과 김은숙 위원은 아직 임기가 1년 남아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운영위원 활동을 고사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의 임원진은 임기용 위원장과 안윤환 부위원장이 1년 더 활동하는 가운데, 운영위원으로 김숙자(고은이오), 김기덕(늘푸른색소폰), 김임진(한지뜨락), 박옥례(로망스기타합주단) 등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위촉된 새로운 운영위원진들은 3월 6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출범식을 통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2009 워크숍은 이렇게 새로운 운영위원진 소개를 끝으로 밤 10시에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숙소로 발길을 옮기는 대신 조촐하게 뒷풀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리조트 내 식당으로 모두들 걸음을 옮겼다. 이 자리를 통해 평소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들과 각자 클럽활동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진솔하게 풀어놓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마음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2009 사랑방워크숍의 뒷풀이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밤 12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밤늦은 시간에야 잠을 청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클럽회원들은 남한강의 푸른 공기에 이끌려 이른 아침 눈을 뜬 후 삼삼오오 짝을 이뤄 강변 산책을 하며 둘째 날을 시작했다.

아침식사와 산책을 마치고 약 두 시간 동안 워크숍 참가에 대한 소감 발표와 종합평가회를 진행 한 후 2009 사랑방 워크숍의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끝낸 사람들은 다시 성남아트센터를 향한 버스에 몸을 실었다.

## 사랑방, 두드리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2009 출범식

2008년 한 해 동안 사랑방문화클럽의 양적, 질적 모든 면에서 큰 변화와 성취를 함께 이뤄냈다는 자부심에 충만해 있던 클럽 회원들은 또 다른 시작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사랑방문화클럽에 있어 2009년은 지난 3년의 초석 위에 새로운 5개년의 첫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해인 만큼 이 날 출범식에 참석한 클럽 회원들 모두 무척 고무된 분위기였다.

title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2009 출범식

time : 2009년 3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place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출범식은 한 해동안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임원진이 꾸려지고, 주요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방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성남문화재단 관계자와 129개 가입 클럽 중 67개 클럽의 회원들을 비롯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 박문석 의원, 이수영 의원, 한성심 의원, 김해숙 의원, 조선미 경기도의회 의원, 분당 FM 정용석 대표, 그 외 경기 · 인천 · 화성문화재단 실무진 등 370여명에 이르렀다.

## 2009년을 열다! 〈1부 개막공연〉

저녁 7시 30분, 출범식은 1부 개막공연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을 열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1부 개막공연의 사회는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 김형미 회원이 맡았다.
사회자의 개막 선언과 함께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성이 앙상블 시어터의 온 무대와 객석을 가득 채우자 객석 오른편 뒤에 자리 잡고 있던 금관 5중주 연주단이 팡파레를 웅장하게 울렸다. 팡파레의 여운이 점점 잦아들면서 암전돼 있던 무대가 서서히 밝아지고, 완전히 밝아진 무대 중앙에는 모듬북 공연이 울려 퍼졌다. 북소리에 어우러져 가슴과 가슴을 잇는다는 시구처럼 그 순간 북을 치는 사람도, 북소리를 듣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 된 뭉클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북소리는 누구의 북소리도 아닌, 바로 사랑방의 북소리였던 거다. 북소리와 함께 벅찬 감동이 절정의 순간을 넘어서자 그 감동의 자리에 다시 '창륭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아리랑오케스트라 이근식 선생의 지휘에 맞춰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늘푸른색소폰앙상블, 모듬북을 사랑하는 모임,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한 아리랑변주곡 창륭아리랑은 음색이 전혀 다른, 색소폰과 플룻이 훌륭한 하모니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연주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연주 실력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자아냈다.

다음으로는 동심의 무대가 이어졌다.
“쉿! 귀 기울여 보세요. 봄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동화구연을 하는 ‘이야기야 놀자’의 맑은 목소리와 함께 꽃과 나비 요정이 무대에 등장하고, 요정들의 진행으로 사랑방 어린이들이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펼쳐보였다.

가족놀이마당 산도깨비의 ‘흥부네 박타기’ 맑은 노래 친구들의 합창, 빛여울 무용단의 벨리댄스까지 사랑방 어린이들의 깜찍하고 흥겨운 공연이 진행될 때, 객석에서는 흐뭇한 미소와 뿌듯한 사랑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시 꽃과 나비 요정이 향긋한 봄인사를 끝으로 퇴장한 후, 무대에서는 곧바로 사랑방문화클럽 홍보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 힘찬 도약! 2009 사랑방문화클럽 〈2부 총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소박하게 시작한 사랑방문화클럽이 어느덧 3년이 흘러 시민문화예술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말과 함께 2부 총회의 문을 연 이는 성남문화재단의 박승현 부장이었다.
그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2009출범식은 클럽 회원들의 마음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뜻 깊은 시간임을 강조하며 이 중요한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참석한 귀빈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중에서도 성남시의회 김대진 시의장님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출범식을 비롯 제 2회 사랑방클럽축제 개막식 한복 패션쇼 무대에서 직접 모델로 설 정도로 사랑방문화클럽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미 도의원은 사랑방문화클럽 정책을 경기도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도 문화소모임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개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귀빈 소개 후 성남문화재단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의 정책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노재천문화예술본부장이 소개되고, 뒤이어 성남아트센터 이종덕 사장이 2005년 7월부터 진행돼온 사랑방문화클럽의 정책과 추진 경과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다.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은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 중 핵심 사업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문화예술을 누리고, 창조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성남시가 추구하는 '향기로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를 한 결과, 성남에는 약 1103개의 시민 문화클럽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클럽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을 연구'한 후 2007년도부터 드디어 사랑방문화클럽의 문을 열게 되었고, 클럽파티, 워크숍, 클럽지기 창립대회 등을 거쳐 제1회 사랑방클럽축제를 통해 핵심 클럽들의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67개 클럽이 7개 팀으로 나뉘어 성남시 곳곳을 찾아다니며 총 46회의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제2회 사랑방클럽축제에서는 출연진으로 참여한 클럽회원의 수가 약 1,293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시민 예술가들이 창조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제 사랑방 문화클럽은 전국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랑방문화클럽을 모델로 삼아 '생활공감정책'을 내놓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성남을 찾고 있습니다.

2009년은 더욱 새롭게 도약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이 될 것입니다. 제3회 사랑방클럽축제가 시작되는 9월 15일에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의 시민 문화클럽을 초청하여 '세계 시민문화클럽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제 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의 자랑이자, 성남시민 모두의 자긍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을 이끌어 가고 계신 클럽리더들과 회원 여러분!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를 준비하듯이 사랑방문화클럽 여러분들의 열정과 창조적 활동이 바로 성남을 세계적인 예술시민의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이 성남의 삶터인 동네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세계의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그 기반을 닦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을 위하여 사랑방 문화클럽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종덕사장의 발표가 끝나고 박승현 부장은 안건상정과 의결을 위해 임기용 운영위원장을 무대 위로 올리고, 그동안 임기용 운영위원장은 양말이 닳아 구멍이 날 정도로 사랑방클럽 행사에 열의를 갖고 빠짐없이 참석해왔으며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사랑방문화클럽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회원들의 큰 박수를 청했다.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와 함께 발표를 시작한 임기용 운영위원장은 지난 2008년 클럽회원들이 보여준 헌신적이고도 훌륭한 모습으로 성남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었다며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인사말로 전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박승현 부장은 본격적인 총회 개최에 앞서 총회에 참가한 클럽수가 전체 사랑방문화클럽 가입회원클럽 129개 중 67개 클럽과 운영위원장에 권한을 위임한 클럽 24개를 합해 총 91개 클럽이므로 과반수가 넘어 총회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시켰다.

성원보고까지 마치니 앙상블시어터 무대와 객석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임기용 위원장은 한층 무게 있는 목소리로 총회 개최를 선언했다.

임기용 위원장 "오늘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2009 출범식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결정됩니다. 첫째는 올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를 이끌어나갈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계획〉을 회원들의 총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기용 위원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할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회원들에게 추가 안건이나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객석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므로 추가안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마침내 안건 의결에 들어갔다.
먼저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순서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7일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박승현 부장이 진행했다.

박승현 부장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정관에 의거하여 2년 연임하신 두 분의 운영위원이 자동 제외되시고,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연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년 운영위원으로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세 분을 포함하여 〈'09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신임운영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추천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는 분당색소폰클럽의 임기용 회장이 연임을 하고, 안윤환 분당중앙수채화 클럽지기와 유명헌 수묵향기 클럽지기를 유임하며, 신임운영위원으로 김기덕 늘푸른색소폰앙상블 클럽지기, 김숙자 고은이오 클럽지기, 김임진 한지뜨락 클럽지기, 그리고 박옥례 로망스기타합주단 총무, 이렇게 총 일곱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지금 무대에 오르는 이 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를 위해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청 중 (사랑방회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사랑방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일곱명의 신임 운영위원들이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신임 운영진들은 손에 손을 잡고 벅찬 감동과 앞으로의 포부를 이심전심으로 나누며 객석의 사랑방 회원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소 들뜬 분위기를 정리하며 임기용 위원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임기용 위원장 "지금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문화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랑방문화클럽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일을 진행하여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만큼 기대와 함께 부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 올 한해가 사랑방문화클럽으로서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어려움 속에서 더 힘을 합쳐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이렇게 선출해 주신 것은 도약의 한해를 만들어 달라는 믿음과 격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용 위원장은 짤막한 소감을 마치고 2008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어준 전임 운영위원들을 무대에 올렸다. 박종대 로스아미고스기타합주단 클럽지기(불참), 곽윤부 우리마당 전 클럽지기, 김은숙 여섯줄사랑 클럽지기 그리고 박병준 자율학습 클럽지기 등 전임위원들은 클럽회원으로, 클럽지기로서, 또 운영위원으로서 1인 3역을 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를 해준 사람들이었다. 객석에 있는 사랑방 회원들 모두 그 점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었던 터라 더욱 큰 박수를 이들에게 보내주었다.

또한, 운영위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랑방문화클럽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획 팀이다. 2009년 기획팀장은 분당색소폰 원도희 팀장이 맡게 되었고, 팀원으로 영상공동체 늘봄의 이상훈 실장, 대원묵향회 박미영 클럽지기, 분당요들클럽 한유덕 회원, 그리고 그동안 운영위원으로 고생이 많았던 곽윤부 위원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됐다. 임기용 위원장은 이들을 소개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는 이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사람들임을 재차 강조했다.

신임 운영위원과 전임 운영위원 그리고 기획팀 모두 다시 한 번 청중에게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퇴장한 후, 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2009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계획이 다음 안건으로 상정됐다. 임기용 위원장이 2009 주요 사업계획을 요약 발표하고 사랑방회원들은 아무 이견 없이 그 내용을 받아들여 객석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열띤 갈채와 환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에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사업계획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만방에 표명했다.
이 순간이 명실상부한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출발이었다.

## 예술 시민의 도시를 꿈꾸다! 〈3부 축하공연〉

2009년은 지금까지의 발전과 영광보다 한발 더 나아지기를 기원하며 사랑방회원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축하공연의 문을 연 이들은 70세 이상 젊은 언니들(?)로 구성된 글로리앙상블.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주 악보를 회원들 수준에 맞춰 편곡 · 지도하면서 사랑방에서 가장 왕성한 의욕과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구 선생(팬오케스트라연구회)의 지휘로 글로리앙상블의 연주가 펼쳐지자 이내 객석에서는 감탄의 미소가 스며 올랐다. 모두들 글로리앙상블이 발휘하는 노익장을 느끼며 '이러한 힘이 사랑방문화클럽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아닐까' 자연스레 생각하는 것 같았다.
글로리앙상블에 이어 풀잎소리의 색소폰 연주, 아마데이만돌린챔버의 경음악과 클래식 연주를 감상하면서 예술 시민 도시, 성남이 결코 멀지 않다는 희망이 차올랐다. 다시 글로리앙상블, 분당늘푸른색소폰

앙상블, 아마데이만돌린챔버, 민요사랑, 청실홍실, 원음합창단, 분당여성합창단이 연합해 이정구 선생의 지휘 하에 한강수타령이 공연되었다. 장구는 우리마당의 임인출 선생이 맡고, 카이로스 무용단에서도 협연을 해주었다. 이 공연은 앙상블시어터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 만큼 벅찬 감동으로 꽉 찬 무대였으며, 향후 사랑방문화클럽들이 모두 모여 1000명의 연합 연주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가슴 뭉클한 상상에 빠져들게 했다.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밤이 이슥해지면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2009출범식은 모두가 다같이 부르는 '만남' 노래와 함께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 사랑방, 소통하다. '세계문화**클럽포럼**'

갑작스러운 신종플루 확산으로 9월 15일부터 개최예정이었던 제 3회 사랑방클럽축제가 급기야 취소되고 말았다. 사랑방클럽축제는 사랑 마당에 꽃을 활짝 피우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클럽회원들은 지난 몇 달동안 무척 공을 들여 준비를 한 상태였다.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난 후였기에 축제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회원들은 망연자실, 큰 허탈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회원들의 허탈한 마음을 다시 곧추 일으켜 세워준 중대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바로 세계문화클럽포럼이 그것이다. 당초 클럽축제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면서 포럼까지 불발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이번 세계문화클럽포럼은 사랑방문화클럽이 세계와의 소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에 축제 최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감행되었다.

title : 세계문화클럽포럼

time : 2009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place :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 ‘자발적 예술 활동과 문화공동체 활성화’

세계문화클럽포럼(World Culture Clubs Forum)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반을 둔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해 재조명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불가리아 등 해외 5개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 활동과 공동체 예술에 관련한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각국의 현황과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과연 시민 자발적 예술활동과 문화공동체는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가, 또한 더욱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며 향후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 PROGRAM _프로그램

전체사회 :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개회식**
• 개회 및 인사
• 영상 소개

**문화공동체 예술정책과 사랑방 문화클럽**
• 노재천_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한국사회에서의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예술**
• 전수환_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제24회 국민문화제 시즈오카 2009**
• 나카다이 히로미_ 일본, 시즈오카현 국민문화제 추진실 대외협력 담당

**1부**
사회: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사랑방 문화클럽 축하공연**
• 글로리앙상블 (지휘:이정구)

**독일의 아마추어 문화예술센터**
• 안드레아스 켐프_ 독일, GEMS 문화센터장, 유럽문화센터 네트워크 대표)

**국제문화센터위원회:불가리아 지역문화센터 네트워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ICH) 정책 사례연구**
• 나데즈다 사보바_ 불가리아, 국제문화센터위원회(I3C) 대표

**2부**
사회: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미국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활동 : 정책 및 실천**
• 돈 아담스_ 미국, 미국 중부 예술연합 공연예술분과장

**영국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
• 로빈 심슨_ 영국, 영국 비영리 예술활동 지원 네트워크 대표

**3부**
사회: 심보선(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4부**
사회: 박승현

**폐회**

첫 번째 기조 발표를 맡은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은 문화공동체 예술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시민이 주체가 된 자발적 예술활동이 문화공동체 발전의 핵심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서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노 본부장은 시민 문화클럽의 자발적 예술활동이 문화공동체 형성과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시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장기적이고 세심한 정책 수립과 사업실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수환 교수는 한국 사회 커뮤니티 기반 문화예술 활동의 역사성을 고찰하면서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 정책과 사업은 한국 사회에서 커뮤니티가 '재발견되는 과정'이며 시민 주체의 거버넌스 형성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해외 초청자들은 각국의 현황을 중심으로 자발적 시민 문화예술 활동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과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결속을 강조하였다.

일본 발표자인 나카다이 히로미(Nakadai Hiromi)는 2009년 24회째를 맞는 국민문화제의 개최지인 시즈오카현의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정책과 추진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 들과 문화관련 기관,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인재 육성이 보다 감성이 풍부한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독일 발표자인 안드레아스 캠프(Andreas Kämpf)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 공간으로 커뮤니티 문화센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커뮤니티 문화센터가 문화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가리아 국제문화센터위원회 나데즈다 사보바(Nadezhda Savova) 대표도 문화공동체의 활동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문화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동안 활발히 전개돼온 자발적 예술 활동의 대륙별 활동 현황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공동체 예술을 소개한 돈 아담스(Don Adams)는 문화민주주의 담론 속에서 공동체 예술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국의 로빈 심슨(Robin Simpson)은 영국민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 활동은 이미 영국민의 삶의 중심에 서 있으며 커뮤니티의 결속에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마추어들의 자발적 예술활동이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에 보다 큰 기여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단체들이나 시민 활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럼 다음날인 9월 16일 사랑방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국내외 발표자들과 성남문화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성남문화재단의 문화공동체 정책과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성과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향후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교류활동을 위한 발전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계문화클럽 포럼은 세계 최초로 시민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세계적 논의가 이루어진 장으로서 시민이 주체가 된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이 문화공동체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한 자리였다. 또한, 한 국가 내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 문화예술 활동이 종국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 시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랑방을 펼치다! '2009 사랑방문화클럽전'

한편, 세계문화클럽포럼과 함께 사랑방클럽전시 또한 계획대로 열렸다. 클럽축제가 취소되었지만 클럽 회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쏟아냈던 열정의 시간이 못내 아쉬웠던지 클럽전만큼은 개최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클럽전 개최를 결정하고 9월 15일 포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전시를 오픈하였다. 클럽전의 오픈 행사에는 포럼에 참석했던 5개국 기관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랑방문화클럽의 수준 높은 예술세계에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하였다.

## 2009 사랑방클럽전

**본관전시(회화클럽)** : 예다움, 수수회, 분당중앙수채화, 은빛샘수채화, 아름아띠, 하늘빛아뜨리에, 성남누두크로키, 분당해드로잉, 성남Ws_art누드크로키, 수묵향기, 연우회, 그림을 배우자, 월산미술포럼, 빛과그림, 새나희, 줌인세상, 찬란한일상, 성남분당 사진사랑, 포토줌마, 분당 경찰서 사우회, 늘미랑
**별관전시(공예클럽)** : 한지뜨락, 한지마을, 한멋한지공예, 신문지공예, 수아트

title : 2009 사랑방문화클럽전
time : 2009년 9월 15일(화)~20일(일)
place :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및 별관

## 사랑방, 기억하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2009 활동보고회

그날은 진눈깨비가 내렸다. 귀가 길에 만나는 추억의 반추처럼 진눈깨비가 내리듯, 지난 한해 명멸하던 사랑방문화클럽의 열정, 열기를 뒤돌아보는 그 날도 하늘에서 진눈깨비를 내렸다.

사랑방 2009를 정리하며,
“벌써 이 날이 왔군”
“수고 많았어요”
“워크숍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쉬움도 많았고, 좋은 추억도 많았고.. ”

한해를 떠올리는 이 말 저 말이 오고가는 가운데 7시 30분이 되자 어수선했던 장내가 정리되고, 활동 보고회가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문화재단의 고성영 차장 또한 어느덧 한해가 가고 지난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왔다며 소회를 밝히고, 곧바로 노재천 본부장과 임기용 위원장의 인사말로 순서를 넘겼다.
노재천 본부장은 2009년은 사랑방의 2단계 5개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한해였다며, 언제나 사랑방을 이끌어주는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임기용 위원장님은 지난 2년 동안 누구보다도 사랑방을 위해 노력한 장본인으로서, 성공과 실패, 희열과 허탈.. 수없이 많은 추억과 감회가 마음 속에 떠오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을 뒤로 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온 클럽회원들에게 수고했고 감사했다는 말로 인사말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이어 박옥례 운영위원이 2009년 한 해 동안 사랑방문화클럽 활동 보고를 설명하는 순서를 맡았다. 그녀는 어떨결에 보고를 맡았다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보이며, PPT 표지에 있던 글귀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이 있으며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 준다네' 라는 내용이 참 좋다며 글귀를 또박또박 낭송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는 2월 7일 양평리조트에서 열렸던 워크숍으로 시작된 한 해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설렘을 안고 축포를 터트리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했었던 출범식에 대해 얘기하고, 사랑방의 열정과 역량이 한 데 모여 멋지게 창조될 수 있었던 사랑방클럽 축제가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아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심전심이었는지 그 순간 장내에는 그녀와 같은 아쉬운 미소가 여기저기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쉽게나마 진행됐던 세계문화클럽포럼과 클럽전, 그리고 13개 팀의 노력의 결실인 45개의 문화공헌프로젝트는 큰 성과로 남았으며 내년에는 더 의미 깊은 한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활동보고를 마쳤다.

박옥례 운영위원의 보고에 이어 고성영 차장은 2010년의 주요 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 발표했다.

| 2010년 주요일정(안) | |
|---|---|
| 1월30일(토) ~ 31일(일) |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 |
| 2월 8일(월) | 2010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설명회 |
| 3월 5일(금) | 사랑방문화클럽 2010 출범식(총회) |
| 3월 10일(수) | 2010 문화공헌프로젝트 공모마감 |
| 4월~10월 | 2010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실행 |
| 6월 25일(금)~26일(토) | 축제 준비를 위한 기획워크숍 개최 |
| 9월 7일(화)~9월11일(토) | 2010 사랑방문화클럽 전국장르별 축제 |
| 9월 7일(화)~9월 12일(일) | 제 4회 사랑방클럽축제 |
| 10월 1일(금) | 제 4회 사랑방클럽축제 평가회 |
| 11월 19일(금) | 2010 사랑방문화클럽 활동보고회 |

전반적인 활동보고 및 내년 사업일정 발표가 끝난 후 이어 포트럭 음식을 나눠 먹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컨퍼런스 홀 뒤편에는 한지로 만들어진 사랑방문화클럽의 로고 등이 환하게 밝혀지고, 회원들이 저마다 싸가지고 온 소박한 음식과 과일들이 한 상 푸짐하게 차려져있었다. 포트럭 음식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동안 올해 신규 클럽인 성남통기타 마틴팬더깁슨과 아니마토만돌린앙상블이 축하공연으로 장내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음악으로 허기를 채우며, 한 해 동안 사랑방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쉬움 반, 만족스러움 반이 섞인 미소와 몸짓을 주고 받고 있었다.

30분간의 포트럭 음식 타임이 끝나고, 활동보고회의 핵심내용인 2009문화공헌프로젝트 각 팀별 팀장 발표가 진행되었다.

사랑방

사랑방

사랑방

## 13개 팀, 2009문화공헌프로젝트 활동보고

가장 처음 찾아가는 문화특공대 팀의 한병조 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처음에 팀의 조합에서 좀 궁합이 안 맞은 감이 있어서 어떻게 함께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며 결국 '각 행사마다 한 클럽을 주축으로 해서 나머지 클럽들은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또한, 3년의 전통을 세운 사랑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저변확대와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클럽들이 돼야 할 것'이라는 말로 보고를 마무리 지었다.

이매문화원 김기덕 팀장은 안말초등학교 옆 구렛들 어린이공원에서만 세 번 공연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홍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3회 땐 지역 동아리들도 함께 참여해 공연했던 것이 참 좋았다' 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동사무소나 지역 아파트 부녀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공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같은 팀으로 활동한 민요사랑을 소개했다.

뒤이어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팀의 이병석 팀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아쉬움의 말로 시작한 그는 '팀의 주축은 물론 풀잎소리였지만, 이정구 선생님이 이끄는 글로리앙상블 등 여러 클럽들이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었기에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었다' 며 '클럽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 보다 뜻있는 공헌활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고 말했다.

이병석 팀장의 발표에 이어 고성영 차장은 이정구 선생님이 이끄는 글로리앙상블이 전국관악기축제에서 3등을 했다며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내주기를 청했고, 모든 회원들은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전했다.
다음은 구미동 사랑방문화클럽 장계석 팀장의 순서였다. 그는 무주에서 선약돼있던 공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취소를 감행하며 활동보고회에 참석했다.
그는 '얼떨결에 팀장을 맡았으며 내년 경과보고에서는 타 팀에 귀감이 되는 팀으로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는 다짐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야외에 맞지 않는 클럽들이 야외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클럽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일을 해나감에 있어 클럽들 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또한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자' 고 말했다.

수정 중원구 문화나눔과 사랑방밴드, 두 팀을 이끌고 있는 곽윤부 팀장은 '문화나눔'에서는 1년 총 5회 공연을 기획했었는데 날씨도 안 좋았고 국상도 나고 해서 이래저래 세 번밖에 행사를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으며, 올해는 클럽들 참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2010년에는 팀장들, 클럽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웃는 얼굴로 만나자' 고 말했다.
그리고 사랑방밴드 팀은 원래 박병준 팀장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를 대신해서 두 팀의 팀장을 맡았었다'며, '동네 구별 없이 다양한 팀들이 참여해 민원 없는 곳에서 공연장을 선택한 결과, 구경꾼도 많았고 호응도 좋았다'며 즐거운 표정으로 발표를 마쳤다.

공연팀 발표에 이어 아름다운 동행 김임진 팀장이 '7개 팀 소속 클럽들이 세 차례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었다' 는 간단한 보고를 하고, 다음 사랑의 힘 팀 발표로 넘어갔다.
사랑의힘 팀 발표는 김성운 팀장의 불참으로 안윤환 부위원장이 대신 맡았다. 그녀는 '작년에 이어 사랑의힘 팀은 2년째 같이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는 전시와 공연이 같이 하는 행사를 치른 데 반해 올해는 전시와 공연이 분리되어 행사가 진행되면서 전시 팀이 조금 외로웠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내년에는 다시 공연 팀과 같이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음, 수진동 마을문화사랑방에서는 박순정 팀장이 불참해 이상훈 늘봄 클럽지기가 발표를 이었다. 그는 '동네로 들어가자는 취지로 신문지공예, 한지마을, 늘봄, 사진반, 봉사클럽들이 수진동에 들어가서 문화강좌를 진행했는데, 그 강좌들이 지금까지 동네 문화배움터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훈 클럽지기의 발표에 이어 고성영차장은 지난 6주간 수진동에서 강좌를 진행한 신문지공예 팀 회원들을 소개했다.

다시 공연 팀으로 돌아가 정자동 새터랑 팀에서는 김병량 팀장이 불참한 관계로 임기용 운영위원장이 발표를 이었다. 그는 '탄천과 까치마을에서 했던 공연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소통을 주제로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연 행사가 날씨 때문에 호응이 낮아서 아쉬웠다' 며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들 노력하자는 말로 전체 팀별 보고의 끝을 맺었다.

이어서 고성영 차장은 13개 팀이 행사를 할 때마다 여기저기에 참여하여 영상 기록을 남겨주신 성남 6mm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김종남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겼고, 김종남 대표는 촬영한 행사 기록들을 사이트에 올려줘야 됐는데 회원들 몇 사람이 그걸 다 하려다보니 충분히 해주지를 못했다며 내년에는 회원들을 더 늘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13개 팀 중에서 수내여울 팀, 인의예지 팀, 무빙사운드 팀은 발표자가 없어서 고성영 차장이 간단하게 지난 행사 일정만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무리 지었다.

끝으로 신규클럽들과 13개 팀 이외 클럽들, 분당만돌린, 늘미랑(늘 미술을 사랑하는 모임), 성남장애인 복지관의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 아니마토 만돌린앙상블 4중주, 쁘니, 그리고 상대원 원다방 DJ로 활동 중인 함께 하는 주부모임, 빛과 그림자 등이 차례로 소개되었고, 올해 초 군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몸은 성남을 떠나있지만 마음만큼은 성남에 두고 주요 행사 때마다 멀리서 참석을 하고 있는 박미영 회원의 인사말도 들어봤다.

문화재단의 박승현 부장의 끝 인사말과 함께 회원들 모두 내년을 기약하면서 두 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던 2009사랑방문화클럽 활동보고회는 끝을 맺었다.

# 사랑방, 넘실대다. '2009 문화통화'

##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품앗이, 성남문화통화!

2009년 한해를 정리하며.. (글_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유상진 과장**)

2009년 문화통화사업은 작지만 의미가 알찬 한 마디를 더한 한해였다.
'09년 8월 수진동 성당이 사랑방 7호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12월 헤리티지너싱홈과 열린 공간이 사랑방 8, 9호로 각각 지정되는 등 올 한해 모두 3곳의 사랑방이 늘어났다.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의 문화통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점점 높아지면서 문화통화 회원가입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67개의 클럽에서 380여명의 회원, 그리고 11개의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또한, '09년에는 재단에서 문화통화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클럽들을 직접 찾아가 문화통화 회원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그동안 문화통화 회원교육은 특정일에 재단을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회원들이 시간이나 이동 등에 있어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찾아가는 회원교육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아울러 문화통화사업을 시민들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치한 '문화통화 운영팀'의 구성과 활동도 2009년 문화통화사업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박순덕 팀장을 중심으로 박상규 교육분과장, 박옥례 공연분과장, 한유덕 장터분과장, 그리고 곽윤부 소식분과장으로 구성된 문화통화 운영팀은 문화통화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화통화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문화통화 운영팀은 또한,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및 기획팀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와 문화통화사업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화통화사업의 기반이 이렇게 외적인 성장과 변화를 함께 이루면서 2009년 문화통화 품앗이 활동도 회원 간 단순한 거래에서 한층 더 발전되어 '관계와 의미'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었다. 품앗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사랑방 4호 서현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던 '장애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한지공예, 종이접기, 라틴/스포츠 댄스, 노래 부르기, 연극 등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참여한 다양한 문화 품앗이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이 품앗이 프로그램은 서현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랑방문화클럽과 자폐청소년들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따스한 유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2010년에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사랑방 2호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한 한지공예 품앗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랑방 6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에서도 품앗이 공연이 꾸준히 진행되어 잔잔한 감동과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청소년인문학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었으며, 본 도심의 동네단위 클럽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풍선 펑'과 같은 클럽을 구성, 동네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0년 문화통화는 2009년의 소중한 성장 마디를 발판으로 사랑방 공간 확대와 품앗이 활동의 저변확대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성남문화통화란?

일상 속의 문화예술활동을 즐기는 시민 문화예술동호회의 연습, 발표 공간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품앗이를 통해 이웃과의 교류를 통한 공동체적 문화예술활동을 증진하고자 마련한 문화 나눔제도다. 성남문화통화의 화폐단위는 '넘실'이다.

**담당: 유상진 과장** |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전화: 031-783-8124, 이메일: anchgin@snart.or.kr)

# 사랑방 대화 '08~ '09 사랑방문화클럽 **임기용 운영위원장 인터뷰**

##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한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얼마 전부터 76세 할아버지가 학교쟁이 땡땡땡을 불기 시작했어요. 팔순 잔치 때 색소폰 연주하는 게 목표래요"

그의 말을 듣고 연습실을 빙 둘러봤더니 정말 어느 방에서 학교쟁이 땡땡땡..하는 소리가 들린다.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색소폰을 부시겠다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정말 희망을 느껴요.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바로 사랑방문화클럽의 큰 힘을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방문화클럽을 2년 동안 이끌어온 임기용 위원장. 그는 지난 2년 동안 사랑방을 성남의 희망 충전소, 성남의 문화충전소로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왔다. 양말에 구멍이 날 정도로 뛰어다녀 사랑방 어느 장소 어느 행사를 가든 그의 땀과 진심이 깊게 스며있다.

이제 그는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내려놓는다. 지난 2년 간 사랑방에 듬뿍 담갔던 그의 열정과 노력, 그 열정의 크기만큼 사랑방을 위해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 진솔한 내용들을 들어보았다.

## Q 지난 3년 동안 사랑방문화클럽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가?

사랑방문화클럽을 처음 시작하면서 재단은 물론 성남시 차원에서도 과연 시민들이 아마추어 문화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특히, 성남시는 본 도심과 신 도심이 나눠져 있어서, 사랑방문화클럽이 서로의 화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됐었다. 사랑방문화클럽이 그동안 3년을 넘기면서 회원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어서 그런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 스스로도 우리 성남시와 시민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Q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움으로 남는 점은?

사랑방문화클럽이 성남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안했다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느껴야 할 부분이지만 누가 뭐래도 분명 사랑방문화클럽은 그동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 차원에서도 아마추어 동아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성남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문화분야에 있어서 너무 프로 중심으로 포맷이 되어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제는 시민들의 아마추어 문화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져한다고 생각한다.

## Q 사랑방문화클럽을 비롯, 시민들의 자발적인 클럽 활동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나 개인으로 봤을 때, 사랑방문화클럽에 등록하기 전에 분당색소폰회장직을 맡으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불우한 청소년, 장애인,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지금도 사랑방과 별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지나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행복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된 후에는 더 많은 장르의 클럽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면서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이 정말 보람되게 느껴진다. 이런 점 때문에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이 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다.
앞으로 보다 많은 성남시 클럽들이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이 되어서 성남시의 지역주민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활동해주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 Q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 회원들 모두 아마추어다 보니 직장생활 하랴, 개인 클럽활동 하랴, 거기에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을 거다. 그런데도 회원들 모두가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 그렇게 열정을 투자한 만큼 이제 회원들 스스로 자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해갈 수 있는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공연이나 전시 등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 하는 데에도 크게 발전한 것 같다.
2008년 사랑방문화클럽축체가 정말 성황리에 치러졌는데, 그 축제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하고 겁도 많이 났었다. 그런데 막상 축제를 열어보니 정말 너무 멋지게 일을 해내지 않았던가. 우리 회원들 모두 밤을 새가면서 몇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성과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더욱 보람을 느끼는 점은 우리 회원들이 기획하고 진행한 전시나 공연을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Q 앞으로 바람이나 계획은?

바람이라면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너무 양분화 시켜서 아마추어는 한수 아래라고 재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두 가지 다른 길일뿐이다.
아마추어 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 우리 사랑방문화클럽은 물론 우리나라 시민문화 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회원으로 돌아간다. 솔직히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직으로 활동하다보니 개인적으로 여유를 갖고 문화 활동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제 색소폰도 더 맹렬히 연습하고, 소속 클럽회원들과 함께 사랑방문화클럽을 위해서, 또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고 싶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 2009 문화공헌프로젝트

# part 2

사람은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 ' 나눔 ' 이라는 낱말이 한낱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때는 없는가.

나눔 이전에 나와 너, 우리는 진심어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나와 너, 우리를 진정한 마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아름다운 무언가,
그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이라면
사랑방문화클럽은 지금이라도 당장 ' 나눔 ' 의 전령이 되어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

# 성남의 문화예술 클럽은 모두 모여라!!

##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설명회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시작한 이래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클럽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핵심 사업으로 2007년 클럽지원프로젝트 공모지원 사업, 2008년 문화공헌지원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한 데 이어 2009년에도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을 펼쳤다.

재단의 지원사업 프로젝트는 해마다 그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취지, 즉, 재단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남 시민의 문화예술클럽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가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의 창조자이며 문화도시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한다는 골간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title :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설명회

time : 2009년 2월 20일 (금) 오후 7시 30분

place :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2009년 2월 20일 열린 사업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2009년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방향은  2008년 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클럽회원들이 직접 도출해낸 몇 가지 개선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제시됐다.
먼저, 명칭에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문화공헌프로젝트로 사업명을 바꾸었다.
2008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클럽지기들이 행정, 실무적 부담을 크게 느낀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예산 및 정산 모두 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면서 재단에서 몇가지 지원항목을 정하였다.

★ 공연행사에 따른 장비(음향, 조명, 무대 등) 지원
★ 행사 시 공간 지원
★ 행사 시 교육 · 체험행사에 따른 재료 지원
★ 행사 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악기나 장비 운반 지원
★ 행사 시 참여 클럽회원에 대한 식비 지원
★ 팀 단위의 행사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홍보 지원
★ 제3회 사랑방클럽축제(09. 9. 15~20) 프로그램에 우선 배정

팀 구성은 5개 이상 10개 클럽 이하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팀은 3회 이상의 문화공헌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팀 소속 클럽은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명기하였다. 또한, 동네문화예술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중심의 팀 구성을 하되 사업분야는 동네 사업과 문화복지 공헌 분야, 장르별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에서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면 프로젝트 참여 클럽 및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성남 문화통화인 '넘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재단에서는 넘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장르 및 분야별 전문가 초청 마스터클래스 등 지속적인 품목 개발 계획을 함께 밝히기도 했다.

〈문화공헌프로젝트 참여 인센티브〉

| 구 분 | 클 럽 | 개 인 | 비 고 |
|---|---|---|---|
| 문화공헌 프로젝트 참여시 | 100,000 넘실 | 10,000 넘실 | |
| 문화통화회원 교육 수강시 | 100,000 넘실 | 10,000 넘실 | 1회만 인정 |
| 문화공헌 활동 | 봉사활동 유형 또는 참여 시간에 따라 조정 | |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뢰된 문화공헌 행사 참여 |
| |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넘실 차등 부여 | | 개별클럽의 자체적인 문화공헌 활동 |

한편, 2009년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설명회는 성남아트센터 1층 컨퍼런스홀에서 약 80여개 클럽 100명이 모인 가운데 전년도 사업팀인 사랑의힘 팀(안윤환 팀장), 아름다운 문화마을 만들기 팀(박순정 팀장)의 사업성과 발표가 있은 후, 박승현 문화기획부장이 2009년 사업방향을 설명하고 신규 운영위원진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사업계획서 신청

2월 20일 사업설명회가 열린 후, 약 한 달간 각 팀별로 본격적인 팀 구성과 사업신청서 작성에 들어갔다. 우선, 워크숍 이전에 장르별로 각 클럽들의 모임 장소를 중심으로 임의로 구성됐던 참조 안 (91페이지 표)을 기준으로 팀 구성 및 팀장 선출을 진행하고, 선출된 팀장들은 팀 소속 개별 클럽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 두 세 차례 팀별 미팅을 가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재단에 제출했다.

title :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time : 2009년 2월 20일(금)~ 3월 20일(금)

그 과정에서 금곡동 팀은 팬오케스트라 연구회와 글로리 앙상블 등 신규 클럽이 많은 데다 팀을 이끌어 갈 팀장이 선출되지 않아 야탑동 팀과 결합하여 추진되었다. 밴드 클럽의 경우에는 공연 시 많은 장비와 무대 규모가 필요한 관계로 지역별 분류기준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전시 4팀 역시 팀장이 선출되지 않았고 전년도 금광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낸 데 바탕을 두고 기타 2팀과 함께 수진동문화사랑방 팀을 구성해 신청했다.
수정구와 중원구는 대부분 풍물팀이 많아 2개 구 클럽들을 연합하여 한 팀을 구성하고 재래시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오케스트라 중심의 실내 공연팀은 문화공헌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연합공연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팀 구성 참조안(워크숍 이전 제안)〉

| 구 분 | 지 역 | 클럽수 | 클 럽 명 |
|---|---|---|---|
| 1 | 구미동 | 8 | 샤론클럽, 분당만돌린, 경기청소년국악단,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민요, 주택공사밴드, 수밴 |
| 2 | 금곡동 | 6 | 브라스색소폰, 팬오케스트라, 글로리앙상블, 카이로스무용단, 신바람, 7080화음사랑 |
| 3 | 정자동 | 7 | 보네르플룻, 분당색소폰, 고은이오, 원음합창단, 모사모, 너울패, 아마데이만돌린 |
| 4 | 수내동 | 6 | 여섯줄사랑, 비바댄스, 성남목관앙상블, 분당여성합창단, 해피색소폰, 산도깨비 |
| 5 | 서현동 | 5 | 로스아미고스, 맑은노래친구들, 윈드매니아, 서현풍물패, 청실홍실 |
| 6 | 이매동 | 5 | 늘푸른색소폰, 성남아코디언, 미멜만돌린, 분당라틴살사, 민요사랑 |
| 7 | 야탑동 | 6 | 스튜디오창, 풀잎소리, 분당요들, 로망스기타, 풍물공동체, 네잎클로버 |
| 8 | 수정구 | 9 | 자율학습, 노래세상, 두렁, 빛여울무용단, 우리마당, 성남판소리, 을지대합창단, 성남6mm, 풍물패다울 |
| 9 | 중원구 | 8 | 그날이오면, 신구윈드색소폰, 야단법석, 터줏, 농협주부풍물패, 새암터, 아침울타리, 늘봄 |
| 10 | 전시 1 | 8 | 예다움, 각양각색, 월산미술포럼, 한멋한지공예, 구미동서예, 수수회, 포토아카데미, 수묵향기 |
| 11 | 전시 2 | 8 | 한지공예, 수람회, 수미회, 은빛샘수채화, 월산누드크로키, 다율회, 그림을배우자, 분당사진사랑 |
| 12 | 전시 3 | 7 | 연우회, 꽃누르미, 성남누드크로키, 분당중앙수채화, 새나희, 줌인세상, 마음그린 |
| 13 | 전시 4 | 10 | 한지마을, 대원묵향회, 빛누리, 찬란한일상, 신문지공예, 서각마을,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 까치사진, 포토줌마, 들꽃작가회 |
| 14 | 실내공연 | 4 | 민트오케스트라, 분당윈드오케스트라, 이듀스메스터코랄, 분당주니어필오케스트라 |
| 15 | 기타 1 | 5 | 클래식음악감상, 성남탄천문학, 참소리, 동화엄마모임, 이야기야놀자 |
| 16 | 기타 2 | 6 | 천상연, 맑은누리, 풍선펑, 여행꾸러미, 쁘니, 단청 |
| 합 계 | | 108 | |

## 심사 및 발표

2009년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전년도와는 달리 직접 현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사랑방문화클럽 자체 내 기획회의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문화공헌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 팀별 사업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사업확정 최종안〉

총 98개 클럽들이 13개 팀을 구성하여 47개 문화행사 개최

| 팀 명 | 클럽수 | 행사명 | 일 자 | 장 소 |
|---|---|---|---|---|
| 찾아가는 문화특공대 | 6 | 전래속으로 고고 | 6월 20일 | 한솔7단지 노인급식소 |
| | | 아름다운음악회 | 6월 12일 | 분당종합노인복지회관 |
| | | 시가 흐르는 풍경 | 9월 12일 | 책테마파크 |
| 이매문화원 | 5 | 춘계이매문화제 | 5월 9일 | 이매동어린이공원 |
| | | 하계이매문화제 | 7월 11일 | 이매동어린이공원 |
| | | 추계이매문화제 | 10월 10일 | 이매동어린이공원 |
| 아름다운동행 | 8 | 아름다운동행 1 | 5월 6일 ~15일 | 보바스병원로비 |
| | | 아름다운동행 2 | 6월 | 청솔종합사회복지관 |
| | | 아름다운동행 3 | 7월 | 여성문화회관/월산미술관 |

| 팀 명 | 클럽수 | 행사명 | 일 자 | 장 소 |
|---|---|---|---|---|
| 수진동마을 문화사랑방 | 8 | 한지공예교육 | 5월~7월(8회) 매주 수요일 | 수진동성당 강의실 |
| | | 신문지공예교육 | 5월~7월(6회) 격주 토요일 | 수진동성당 강의실 |
| | | 장수사진촬영 | 6월~7월, 2회 | 수진동 경로당 등 |
| | | 독거노인 반찬봉사 | 5월~7월, 3회 | 수진1동 일대 |
| | | 우리지역전통축제 단오제 기행 | 5월 10일 | 남한산성 |
| | | 사진과 영상으로 엮은 수진동마을문화사랑방 | 5~7월 촬영 | 수진동 일대 |
| | | 수진동 밴드교실 | 5~7월 주2회 20차시 | 수진동성당 밴드실 |
| | | 어린이 동영상 강좌 | 5~7월 주1회 10차시 | 수진동성당 컴퓨터실 |
| | | 수진동 마을문화제 | 7월 18일 | 수진동성당 카페 |
| 수내여울 | 5 |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사랑음악회 | 5월 16일 | 혜은학교 |
| | | 수내동주민을 위한 음악회 | 6월 13일 | 중앙공원 |
| | | 재래 시장음악회 | 10월 10일 | 돌고래재래시장 |
| 새터랑 | 7 | 탄천사랑음악회 | 7월 25일 | 탄천 수내교 |
| | | 젊음의 행진 | 7월 25일 | 정자청소년수련회 |
| | | 이웃사랑 음악회 | 8월 22일 | 아이파크아파트 |
| | | 나눔의 음악회 | 9월 19일 | 정성노인의집 |

| 팀 명 | 클럽수 | 행사명 | 일 자 | 장 소 |
|---|---|---|---|---|
| 사랑의 힘 | 9 | 사랑나눔 1 | 5월 20일~27일 | 아트스페이스율 |
| | | 사랑나눔 2 | 7월 3일~9일 | 국군수도병원 |
| | | 사랑나눔 3 | 5월~10월 | 성호시장내 |
| 문화나눔 | 11 | 재래시장과 함께하는 잔치 | 5월 9일 | 상대원시장 |
| | | 재래시장과 함께하는 잔치 | 6월 14일 | 모란민속장 |
| |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 9월 13일 | 남한산성 |
| | | 재래시장과 함께하는 잔치 | 10월 4일 | 모란민속장 |
| | | 재래시장과 함께하는 잔치 | 10월 말 | 성호시장내 |
| 락페스티벌 | 5 | 시민과 함께하는 락페스티벌 | 5월 9일 | 남한산성 |
| | | 시민과 함께하는 락페스티벌 | 8월 23일 | 율동공원 |
| | | 시민과 함께하는 락페스티벌 | 9월 27일 | 구미동 야외무대 |
|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 9 |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 5월 23일 | 중원초운동장 |
| | | 사랑으로 | 9월 12일 | 야탑 상희공원 |
| | | 탑마을 문화축제 | 10월 10일 | 야탑역 광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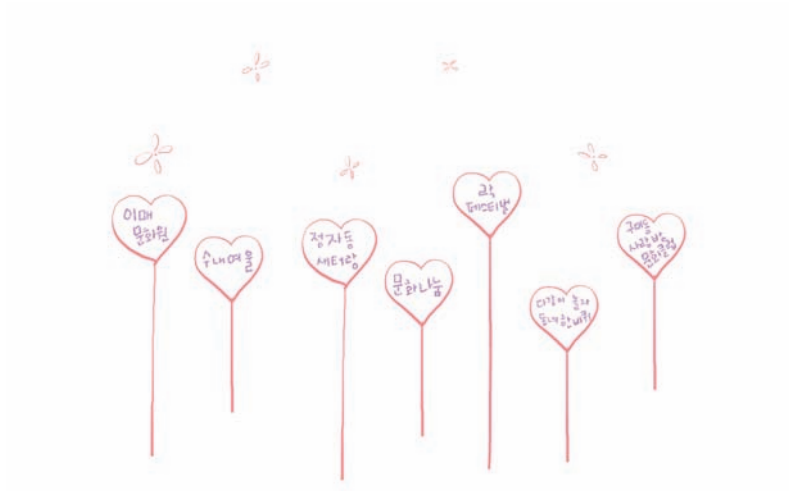
| 팀 명 | 클럽수 | 행사명 | 일 자 | 장 소 |
|---|---|---|---|---|
| 구미동 사랑방문화클럽 | 10 | 가족한마당대잔치 | 5월 17일 | 구미동야외무대 |
| | | 한 여름날의 대축제 | 8월 14일 | 구미동야외무대 |
| | | 가을밤을 주민과 함께 | 10월 16일 | 구미동야외무대 |
| 인의예지 | 10 | 엄마랑 아기랑 물감놀이 | 5월~10월 | 중앙공원 |
| | | 먹물 갖고 놀아보세 | 5월~10월 | 분당노인복지관 |
| | | 가을향기 속으로 | 8월 31일~ 9월 5일 | 분당여성회관 |
| 무빙사운드 | 5 | 서현 로드뮤직 | 5월 10일 | 서현역 먹자거리 |
| | | 사랑방파크뮤직 | 7월 12일 | 서현2동 소공원 |
| | | 서현 로드뮤직 | 9월 20일 | 서현역 먹자거리 |

# 열림, 나눔, 감동을 위한 13개의 기억들

(각 팀별 2009 **문화공헌프로젝트**)

2009년 문화공헌프로젝트에는 13개 팀 총 102개의 클럽들이 참여했다.
사업계획신청시에는 99개 클럽이 13개 팀을 구성하여 총 49개 행사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1년 간의 실행단계에서 신종플루확산, 기상 상태, 국상(國喪)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총 6개 행사가 취소되고, 반면 수내여울 팀과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팀에서 각각 1회씩 행사를 추가 진행하여 실제적으로 총 45개의 행사가 실행되었다. 참여클럽으로는 99개 클럽 중 21개 클럽이 불참하고, 그 대신 24개의 신규 및 기타 클럽들이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45개 행사 중 수정 · 중원구에서 14개, 분당구에서 31개 행사가 열렸고, 45개 행사 장소가 열린 총 25개 곳 중에서 분당구 19개소, 수정 · 중원구 6개소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 〈2009년 팀별 신규 클럽〉

**이매문화원 :** 이매목관앙상블, 분당늘푸른스트링스앙상블

**수내여울 :** 김영자민속예술단, 보브스앙상블, 수내자치팀 합창

**새터랑 :** 성남만돌린기타챔버, 형님밴드, 4차원밴드, 트윙클

**문화나눔 :** 밴드 배움터, 상대원1동 풍물패, 지니어스

**락 페스티벌 :** 딕스미스, 쵸코파이, 올드미스, 루씨르, 주공밴드, 사우스캐슬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 김남숙스포츠댄스, 플라밍고기타합주단

**구미동 사랑방문화클럽 :** 하모니카클럽, 비단향, 쏘울메이트, 통기타클럽

## 이매문화원

팀장: **김기덕**(늘푸른색소폰앙상블)

늘푸른색소폰, 성남아코디언, 미멜만돌린, 분당라틴살사, 민요사랑 등 5개 클럽으로 구성된 이매동 이매문화원 팀은 지역 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행사장소를 한 곳으로 국한, 안말초등학교 구렛들 어린이공원에서만 세 차례 공연했다. 춘계행사는 당초 계획된 날짜인 5월 9일에 진행하였고, 하계와 추계는 날짜를 변경하여 각각 7월 11일, 10월 10일에 행사를 열었다.

time : 2009. 5. 9(토) 19:00~20:30

place : 이매동 구렛들어린이공원

## 〈제 1회(춘계) 이매 문화제〉

소속팀인 늘푸른색소폰앙상블, 분당라틴살사동호회, 민요사랑이 참여하여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지고 흥겨운 춤이 곁들여진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행사 며칠 전부터 중국음식점 등 인근 배달업체와 연계하여 행사 전단지를 돌리는 기발한 홍보 아이디어로 약 250여명의 관객들이 모일 수 있었다.
행사를 함께 한 관객들 중에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덕담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time : 2009. 9. 26(토) 19:30~21:30

place : 이매동 구렛들어린이공원

## 〈제 2회(하계) 이매 문화제〉

coffee와 pop, 우리동네 연주회, 우리문화사랑 등 여러 가지 테마로 공연을 구성해 사람들로 하여금 짜임새 있는 행사라는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매동의 스타라고 불리는 선생님 밴드 자율학습의 인기에 힘입어 이매동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하여 자율학습은 물론 참여한 모든 사랑방문화클럽의 공연들에 큰 호응을 전해주었다. 전체 약 300명이 넘는 관객들로 행사장이 비좁을 정도로 꽉 찬 이 날 행사는 공연을 한 클럽들과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방문화클럽에 큰 보람을 남긴 행사로 기억되고 있다.

time : 2009. 10. 24(토) 15:30~17:00

place : 이매동 구렛들어린이공원

## 〈제 3회(추계) 이매 문화제〉

가을이 무르익어 해가 많이 짧아지면서 10월 중순을 넘긴 행사들은 대부분 이른 시간에 공연을 열 수 밖에 없었다. 추계 이매문화제도 좀 이른 감이 있는 3시30분에 행사를 시작했다. 이날 공연은 이매동 주민들로 주축을 이룬 늘푸른스트링앙상블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클래식현악 연주를 선보였고, 늘푸른색소폰클럽과 글로리앙상블이 분위기있는 연주로 가을날의 운치를 더해주었다. 하지만,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분데다 행사가 있던 시간에 마침 프로야구 코리안시리즈 마지막 경기 중계방송이 있어서 객석이 무척 썰렁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 아름다운 동행

팀장: **김임진**(한지뜨락)

'생활 속의 예술, 그리고 다양한 모습과 삶에의 응용'을 성남 시민들과 더불어 즐기고자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 7개 클럽은 그림을배우자, 성남분당사진사랑, 은빛샘수채화, 예다움, 월산미술포럼, 월산누드크로키, 한지뜨락.
아름다운 동행팀은 그림, 사진, 공예 등의 전시를 비롯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시간을 구성한 세 차례의 행사를 통해 짙은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했다.

## 〈아름다운 동행 1〉

사랑방 2호인 보바스 병원 로비에서 열린 아름다운 동행팀의 첫 번째 행사는 소속 팀들이 모두 참여하여 전시와 체험 두 가지 테마로 진행하였다.
전시는 누구에게나 친근한 수채화나 사진 작품을 비롯해 누구나 한번쯤 배워보고 싶어하는 한지 공예, 그리고 이색적인 크로키 작품까지 장르의 폭을 넓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예술세계를 보여주었으며, 체험행사에서는 환자들과 함께 부채를 만들면서 그들의 아프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겹고 훈훈한 시간으로 채웠다.

time : 2009. 5. 6(수)~5. 15(금)

place : 보바스 기념병원 로비

time : 2009. 6. 17(수)15:00~16:30
place : 청솔종합사회복지관(예다움)

time : 2009. 6. 24(수)15:00~16:30
place : 청솔종합사회복지관(한지뜨락)

## 〈아름다운 동행 2〉

예다움과 한지뜨락이 6월 17일과 24일에 각각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예다움의 체험행사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한지 부채에 저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채워 넣으며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한지 뜨락은 알록달록 형형색색 한지 조각들을 가지고 예쁜 쟁반을 함께 만들어보았다.
아이들은 한지가 주는 소박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time : 2009. 7. 2(목)~10(금)

place : 분당여성회관/ 월산아트센터

## 〈아름다운 동행 3〉

아름다운 동행팀 세 번째 전시는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예다움, 한지마을, 그림을 배우자, 신문지 공예 등 4 개 클럽은 분당여성회관에서 전시를 진행했고, 월산미술포럼, 한지뜨락, 월산누드크로키, 은빛샘수채화 등 4개 클럽은 월산아트센터에서 세 번째 문화공헌 프로젝트 전시를 열었다.
분당여성회관에서 진행됐던 전시에서는 로망스기타합주단이 초대되어 감미로운 선율을 통해 그림의 향기와 감동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해주었다.

## 수진동 마을문화사랑방

팀장: **박순정**(여행꾸러미)

마을문화사랑방은 한팀을 이룬 사랑방문화클럽들이 함께 동네로 들어가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첫 번째 시도였다. 성남문화재단과 새롭게 사랑방 조인식을 갖고 제 7호 사랑방이 된 수진동 성당에서 강좌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수진동 성당의 신부님 또한 분당 색소폰클럽에서 색소폰을 배운 이력을 지닌 사랑방 클럽 회원이기도 해 특히 이번 문화공헌프로젝트에 더욱 큰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마을문화사랑방에서 시작된 문화강좌들은 동네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화배움터 사업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문화강좌〉 _ 5월~7월

**한지공예교실**

공예클럽 한지마을이 매주 수요일마다 강좌를 열어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지공예의 세계를 지역주민들에게 전해주었다. 이 강좌는 총 8회 진행되었다.

**신문지공예교실**

격주 토요일에 진행된 신문지공예교실은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활동한 강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6회 진행되었다.

**수진동밴드교실**

총 20회 진행된 밴드교실은 수진동 주민들이 색소폰, 드럼, 보컬 등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된 끼를 발산하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수진동 밴드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생활동영상강좌**

자신의 동네와 일상의 삶을 카메라에 담는 동영상강좌는 총 10회 진행되었다.

## 〈문화공헌〉

수진동 마을문화사랑방은 문화 강좌와 함께 다양한 문화공헌활동을 펼쳤다.
포토줌마는 지역 어르신들 50여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을 하셨고, 여행꾸러미는 5월 10일 남한산성에서 우리지역전통축제인 단오제를 열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흥겨운 축제를 벌였다. 천상연에서는 총 세차례 수진동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 및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time : 2009. 7. 19(일) 오후 2시~6시

place : 수진동 성당

## 〈수진동 마을문화제〉

한지마을, 여행꾸러미, 포토줌마, 신문지공예 클럽 등이 참여해 그동안 문화 강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한지로 벽걸이사진틀 만들기, 신문지로 여치집 트리 만들기 등을 즉석에서 체험해보는 행사를 열었으며, 수진동 지역 노인들을 위한 장수사진 찍기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밴드교실을 통해 결성된 수진동 지역주민 밴드의 첫 공연도 이루어졌다.

## 수내여울

팀장: **황병진**(해피색소폰동호회)

여섯줄사랑, 성남목관앙상블, 해피색소폰동호회, 가족풍물패 산도깨비 등의 기존 클럽들과 보브스앙상블과 김영자 민속예술단 등 신규클럽들이 함께 참여해 네 차례 풍성한 행사를 가졌다. 특수학교, 재래시장, 공원 등 장소와 대상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그로 인해 관객의 호응도 높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된다는 사랑방의 취지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time : 5. 16(토) 10:30~12:00

place : 혜은학교

###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사랑음악회〉

수내여울의 첫 공연은 수내동을 벗어나 남한산성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장애우 특수교육시설인 성남혜은학교에서 열렸다.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강당에서 먼저 성남목관앙상블이 플룻 연주로 공연을 시작했다. 플룻의 맑은 소리가 강당에 울려퍼지면서 장내에서는 따뜻한 온기와 감동이 스며들었다.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동요를 처음 들어본 아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연주될 때마다 신기한 듯 따라 불렀고, 이어 가족풍물패 산도깨비가 등장해 하회탈 놀이가 펼쳐지자 아이들은 자신이 놀이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흥겨운 풍물소리에 푹 빠져드는 모습이었다.

time : 2009. 6.13(토) 19:00~21:00

place : 중앙공원

## 〈수내동 주민을 위한 음악회〉

토요일 오후, 중앙공원에 산책을 나섰던 주민들은 신명나는 풍물패 소리에 발길을 멈추었다. 풍물 우리마당의 길놀이로 시작된 음악회를 보기 위해 4백 여 명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들었다. 해피 색소폰의 멋진 연주에 이어 가족풍물패 산도깨비 해금 연주단이 무대 위에 오르자 공원에 모인 가족들은 걸음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가락의 흥에 흠뻑 젖어들었다. 또한, 수내동 자체적으로 구성된 기공체조시범팀이 공연을 펼치자 수내동 주민들이 더욱 큰 박수로 호응을 해주었다. 끝 순서로 수내동 자치팀과 객석의 주민들이 다함께 합창을 부르며 공연의 마지막까지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 〈재래 돌고래 시장 음악회〉

돌고래 재래시장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 자리 잡고 있고, 무대를 설치할 공간도 넉넉지 않아 공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재래시장 속으로 들어가 상인들과 함께 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연을 감행했다. 예상대로 관객 참여는 미미했고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클럽 회원들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와 공연을 보여주었고, 뒤늦게 참여한 시장 상인들이 엽기 노래 행진을 펼치면서 시작과는 달리 무척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의 끝을 맺을 수 있었다.

time : 2009. 10. 10(토) 14:00~16:00

place : 돌고래 재래시장

time : 2009. 10. 24(토) 16:00~18:00

place : 중앙공원

## 〈해피 가을음악회〉

수내여울의 네 번째 공연은 중앙공원으로 다시 무대를 옮겼다.
해피 색소폰 동호회, 보보스 앙상블, 해피밴드 등 세 클럽이 모여 가을의 운치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 약 300여명의 관객들이 깊어가는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 새터랑

팀장: **김병량**(분당색소폰클럽)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 분당색소폰, 고은이오, 원음합창단, 모사모, 너울패, 아마데이 만돌린 등 7개 클럽으로 구성된 정자동 새터랑팀은 매 행사마다 장소와 타깃을 세분화시키고 공연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진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관객 동원에 크게 성공하였다. 당초 4개 행사 계획에서 어르신을 위한 정성노인의 집 행사가 신종 플루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나머지 3개 행사를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time : 2009. 7. 4(토) 17:00~21:00

place : 탄천 수내교 밑

## 〈탄천 사랑음악회〉

탄천 사랑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새터랑팀의 첫 공연은 사회단체와 함께 탄천을 청소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청소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포함한 350여명의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한 여름 밤의 열기를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다.

사랑방문화클럽 원도희 기획팀장의 전문 MC 못지않은 감칠맛 나는 진행솜씨와 색소폰, 기타와 노래, 모듬북, 만돌린 등 다양한 악기와 음악이 등장하면서 2시간 가까운 공연이 지루할 틈 없이 전개되었다.

time : 2009. 9.5(토) 19:30~21:00

place : 까치마을 벌말공원

## 〈까치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한 여름 밤의 낭만〉

까치마을 벌말공원에 판을 벌인 새터랑 두 번째 공연은 약 5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병량 팀장을 비롯 새터랑 팀원들은 공연 몇 개월 전부터 분당아파트 공동주택회장단 연합회와 접촉하여 그들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행사를 계획함으로서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에서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이날 공연에서는 동네주민들은 물론 단국대 무용팀, 가수 임조아 등이 초청되어 공연에 색다른 활기를 불어넣어주었다.
한편,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홈플러스에서 부스를 만들어 관객들에게 시원한 물과 음료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time : 2009. 10. 31(토) 16:00~18:00

place : 정자청소년수련관

##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정자 어울마당〉

새터랑팀의 세 번째 프로젝트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10월 말의 추운 날씨를 고려해 실내로 무대를 옮긴 이날 공연에서는 기성 세대 대표로 분당 색소폰클럽과 보네르 플룻오케스트라, 7080화음사랑, 보보스 앙상블 등이 참가하여 대중음악에서 클래식을 아우르며 청소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선보였으며, 청소년 대표로 형님밴드, 4차원 밴드, 지니어스, 트윙클 등이 참가해 연주와 춤, 최신가요 등 자신들의 솜씨를 한껏 뽐냈다. 돌풍을 동반한 폭우 때문에 꽉 찬 공연의 내용과는 달리 객석이 썰렁해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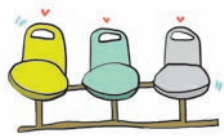
사랑방문화공감

## 문화나눔

팀장: **곽윤부**(풍물굿패 우리마당)

총 11개 클럽 중심으로 활동한 문화나눔은 애초 중원구, 수정구 팀을 나눠서 팀을 구성하려 했지만 총 11개 팀 중에서 8개가 국악 클럽인 관계로 팀을 나누지 않고 한 팀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한 후 총 다섯 번의 공연을 기획했다. 그런데 문화나눔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천이나 국상(國喪) 등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며 연거푸 행사를 실행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어 결과적으로 소속 클럽회원들이 본의 아니게 사기가 다소 떨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나눔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세 차례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재래시장에 집중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열악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클럽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time : 2009. 7. 19(일) 16:00~17:30

place : 수진동 성당 강당

## 〈수진동 사랑방 마을문화제〉

문화나눔은 수진동 마을문화사랑방 팀과 결합해 마을로 들어가 문화배움터를 함께 진행하고, 수진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 문화제를 수진동 팀과 함께 열었다.
행사의 1부는 문화배움터 한지 · 신문지공예, 작품전시, 장수사진찍기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2부 음악회에서는 아침울타리, 신구윈드색소폰, 두렁, 성남 판소리, 7080 화음사랑 등이 참여했으며, 수진동 문화 배움터를 통해 결성된 주민 밴드가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실력을 처음으로 무대에서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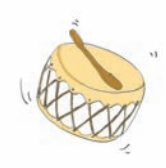
time : 2009. 10. 16(금) 19:30~21:00

place : 희망대공원

## 〈음악이 흐르는 희망대공원〉

여러 차례 우천과 국상으로 행사를 실행하지 못했던 문화나눔팀은 문화공헌프로젝트가 끝나는 10월까지 끝까지 공연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획으로 행사를 열었다.
희망대공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연은 7080 화음사랑과 신규 클럽인 분당윈드피플이 참여해 가을밤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맞는 노래와 연주를 펼쳐보였지만 추운 날씨 탓으로 많은 관객이 모이지는 않았다.

현대직판장
문화예술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삼대원시장 음악회
10. 23(금). 오후 4시 / 삼대원시장 특설무대

time : 2009. 10. 23(금) 16:00~17:30

place : 상대원 시장

## 〈상대원시장 음악회〉

상대원 1팀 풍물놀이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음악회는 예가원 장애우팀의 난타 퍼포먼스, 상대원동 어린이 태권도 시범이 초반부터 관중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더니 색소폰과 모듬북 연주, 샤바샤방의 각설이 타령이 공연되자 객석을 가득 매운 사람들 사이에서 뜨꺼운 박수와 흥겨운 춤사위가 터져나왔다.
또한, 아이들의 동요 합창과 피페연주, 지니어스의 힙합춤, 루씨르의 락 공연은 세대를 뛰어넘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상대원시장의 5살 트롯 신동 이상협 군이 노래를 부를 땐 TV프로그램 스타킹을 방불케하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한편, 상대원시장 상인들이 상품들을 협찬해 관객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선사하기도 했다.

## 사랑방밴드

사랑방밴드는 락밴드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전체 13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동네로 구분하지 않고 팀 구성을 했다. 기존의 사랑방 소속 밴드팀들은 물론 신규 밴드들이 다수 섭외되어 행사를 할 때마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 기획단계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사 장소를 민원과는 상관없는 오픈된 장소로 선택하여 공연하여, 별다른 홍보 없이도 지나가는 구경꾼들의 발길을 잡아두며 많은 관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었다. 또한 신규, 기존 상관없이 다양한 사랑방밴드들이 다른 팀들의 문화공헌행사에 초청되어 행사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톡톡히 한몫을 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락페스티벌 1〉

남한산성을 흔드는 락 음악이 울려퍼지자 약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모여들었다. 팀의 추축인 자율학습을 필두로 스튜디오 창의 초코파이와 딕스스미스, 노래세상밴드 등이 격력한 사운드로 연주와 노래를 펼치고, 풍물 우리마당의 신명나는 풍물소리로 한층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예상외로 할머니 관객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서 자율학습은 공연 후 큰 절과 용돈 만원까지 받았다는 후문이 있었을 정도였다.

time : 2009. 6. 28(일) 17:00~18:30

place : 남한산성

## 〈시민과 함께하는 락페스티벌 2〉

9월 6일, 늦더위에 축 처져 있던 율동공원이 속을 뻥 뚫리게 하는 락페스티벌로 활기가 되살아났다.
주택공사 공무원들로 결성된 주공밴드 JR 1기, 2기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은 열광의 함성을 질렀고, 그 분위기를 몰아 무대 위 멤버들은 숨은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신나는 공연을 펼쳐 보였다.
스튜디오 창의 올드미스와 이날 공연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루씨르밴드가 잇따라 열정적인 무대로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율학습이 선생님 같지 않은 포스로 좌중을 휘어잡으며 공연을 마무리 지었다.

time : 2009. 9. 6(일) 17:00~18:30

place : 율동공원

time : 2009. 10. 17(토) 19:30~21:00

place : 수내교 밑

## 〈시민과 함께하는 락페스티벌 3〉

사랑방밴드 락 페스티벌의 세 번째 공연은 깊어가는 가을 저녁, 탄천변의 어두운 적막함을 깨며 시작되었다. 신규클럽인 성남시 공무원밴드 사우스 캐슬이 사랑방공연에서 첫 선을 보이며 자신들의 기량을 한껏 발휘했으며, 올해 사랑방문화공헌프로젝트 여기저기에서 젊은 감초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던 루씨르가 사랑방밴드의 2009 마지막 공연에도 함께 했다.
이날도 역시 자율학습은 학생 팬들까지 대동하여 주입식(?) 밴드의 힘을 확인시켜주었다.

문화예술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랑방문화클럽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팀장: **이병석**(풀잎소리)

분당지역의 색소폰 클럽 중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많이 모인 풀잎소리를 중심으로 70대 할머니들로 구성된 글로리앙상블, 그 외 분당라틴살사, 7080화음사랑, 카이로스 무용단, 로망스기타합주단 팀 등이 함께 모여 세대와 장르를 뛰어 넘은 좋은 공연으로 1년간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준 야탑금곡동 팀,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특히, 동네를 대표하는 지역주민들을 통해 홍보와 관객 참여를 유도하여 관객의 높은 호응을 얻은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time : 2009. 5. 23(토) 16:00~20:30 place : 중원초등학교

##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음악회 1〉

야탑 · 금곡동 팀이 가장 처음 공연을 위해 찾은 곳은 중원 초등학교였다.
사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회를 찾아가 홍보를 요청하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종합장에 행사를 전하는 알림글을 써서 보내는 등 전폭적인 도움을 주었다. 행사날 고 노무현대통령 서거 소식이 전해져 행사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행사는 무사히 진행되어 아트풍선을 받기 위해 약 3백 여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공연을 중간까지만 진행하고 무대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

time : 2009. 9. 12(토) 18:00~19:30

place : 야탑동 상희공원

##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음악회 2〉

상희공원은 최근 2,3년 동안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물론 공연을 위한 무대까지 갖추게 되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상희공원을 사랑방과 함께 대대적으로 알린다는 취지로 두 번째 공연을 진행하였다. 팀원들은 이번에도 홍보를 위해서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각 통장을 만나 밤 10시까지 전단지 배포 작업을 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러나 행사 시간이 좀 이른 감이 있어서 노력에 비해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행사장에 모인 150여명의 관객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어 야탑동에 사랑방문화공헌문화공헌프로젝트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time : 2009. 10. 10(토) 16:30~18:00

place : 야탑동 상희공원

##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음악회 3〉

세 번째 동네한바퀴 음악회는 야탑동 지역주민의 러브콜을 받아 다시 한번 상희공원에서 무대를 올렸다. 로망스기타합주단의 분위기 있는 오프닝 연주와 글로리 앙상블의 멋진 색소폰 합주가 진행되면서 음악을 통해 무대와 객석이 아주 멋진 앙상블을 이루었다.

초청 공연팀으로 김남숙 댄스스포츠에서 두 명의 댄서가 출연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의상에 경쾌한 스텝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풀잎소리는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모자를 쓴 연주자들이 가을 분위기를 물씬 담은 곡들로 멋진 무대를 선사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동네한바퀴 팀의 풀잎소리는 매년 자체적으로 열고 있는 공연을 2009년부터 사랑방문화공헌프로젝트와 접목하여 더욱 의미 깊게 진행하였다.
주최 클럽인 풀잎소리의 팀원들 중 교통안전공단의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한 이날 공연에는 야외무대의 추운 날씨에도 2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풀잎소리와 초청 공연팀 허비스밴드, 플라밍고기타합주단, 김남숙 스포츠댄스 팀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time : 2009. 10. 17(금) 19:00~21:00

place : 만나교회 옆 탄천 둔치

## 구미동 사랑방문화클럽

팀장: **장계석**(동네사람들)

구미동은 이웃애가 넘치는 제 2의 고향, 구미동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자발적으로 마을축제까지 열었었다. 구미동 사랑방문화클럽은 지난 마을축제를 고안했던 국악인 장계석 팀장이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걸고 새롭게 팀을 구성, 2009년 한해 동안 국악을 중심으로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클럽들을 하나의 무대에 아우르며 다채롭고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다.
기존 동네 클럽들인 하나로 클럽 민요반, 비단향, 한국토지주택공사밴드, 분당윈드피플 등을 문화공헌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는 점도 구미동팀에서 거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 〈가족사랑음악회〉

구미동 팀의 첫 번째 무대는 음악이 전해주는 감동을 통해서 가족들의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가족사랑음악회였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탄천의 상쾌한 바람과 초록의 싱그러움을 배경으로 펼쳐진 가족사랑음악회에는 하나로민요반, 비단향이 출연해 우리 국악을 신명나면서도 재미있게 보여주었으며, 특히 무형문화재 제29호 전수자인 오한수 회원이 함께 참여해 경기민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분당늘푸른색소폰, 그날이오면 팀이 찬조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time : 2009. 5. 22(금) 19:30~21:00 place : 구미동 탄천 야외공연장

time : 2009. 8. 14(금) 19:30~21:00

place : 구미동 탄천 야외공연장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

한여름의 열대야를 피해 시원한 탄천으로 몸을 옮긴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물놀이패의 소리에 이끌려 야외공연장을 찾아들었다.

구미동팀이 펼친 한여름밤의 콘서트는 정말 다양한 소리로 탄천을 울렸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돼 사랑방클럽 초창기부터 멋진 댄스를 선보여주는 샤론클럽과 사람의 목울대에서 나오는 노래와 민요, 여섯줄 현에서 은은하게 튕겨져 나오는 기타소리, 바람의 소리를 닮은 아코디언과 하모니카 소리,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하다는 색소폰 소리 등 갖가지 아름다운 소리가 상쾌한 탄천의 풍경과 어우러지며 사람들로 하여금 한 여름 밤을 낭만으로 빨려들어 가도록 만들었다.

time : 2009. 10. 17(토) 18:30~20:30

place : 구미동 탄천 야외공연장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구미동 가을음악회〉

구미동 팀의 마지막 공연이었던 가을음악회는 이색적으로 웃음치료사인 김미애 씨가 사회를 맡아 행사 내내 즐거운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마치 웃음 치료를 받은 듯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었던 공연이 됐다.

공연에는 구미동 국악인들이 꾸린 동네사람들과 사물놀이 이화, 모사모가 참여해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무대를 꽉 채웠으며, 주공밴드 JR 1기의 속 시원한 락음악과 춤사랑무용단의 하늘거리는 춤사위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무빙사운드

팀장: **박종대**(로스아미고스기타합주단)

무빙사운드는 조금 늦게 스타트를 끊어 10월에만 두 차례 분당구청 앞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가졌다. 박종대 팀장이 이끄는 로스아미고스기타합주단과 윈드매니아, 서현풍물패, 청실홍실 등 기존 클럽들과 쏘울메이트, 통기타클럽 마틴팬더깁슨 등이 함께 공연을 만들었다.

time : 2009. 10. 11(일) 16:00~17:30 place : 분당구청 앞

## 〈가을뜨락음악회 1〉

서현동 무빙사운드 팀 가을뜨락음악회 첫 무대는 가을 바람이 싸늘해지기 시작하면서 분당구청 앞 잔디공원을 찾는 사람도 줄어들어 아쉽게도 객석이 많이 허전한 채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텅 빈 객석에도 기죽지 않은 클럽회원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보여 공연 후반에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객석이 훈훈하게 채워졌다.

## 〈가을뜨락음악회 2〉

두 번째 가을뜨락음악회에는 서현동 소속 클럽들과 찬조클럽인 그날이오면이 함께 공연을 펼쳤다. 사물놀이와 경기민요가 공연될 땐 외국인들이 무리지어 발길을 멈추고 손장단, 발장단을 맞추며 감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았다.

time : 2009. 10. 24(토) 15:30~17:00

place : 분당구청 앞

찬조공연 팀인 그날이오면은 소속 팀인 문화나눔 팀의 공연들이 비 때문에 취소되면서 다른 팀 찬조공연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이날 공연은 그날이오면의 올해 마지막 찬조공연이 됐다.

## 인의예지

팀장: **유명헌**(수묵향기)

인의예지 팀은 사진, 수채화, 유화, 수묵화 등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의 장을 꾸며 알찬 한해를 보냈다.
문화를 통해 어짊, 의로움, 예의, 지혜 등 네 가지 미덕을 배우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믿음으로 분당경찰서 사우회, 수람회, 분당서도회, 수수회, 수묵향기, 한멋한지공예, 포토아카데미 등 7개 클럽들이 함께 세 차례의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time : 2009. 5. 29(금)~6. 5(금)

place : 분당종합노인복지관

## 〈어르신을 위한 작품전시회〉

인의예지 팀 행사의 첫 테이프는 전시로 끊었다.
분당 종합노인복지관 복도에 따뜻한 느낌의 그림과 한지 작품들이 자리를 잡자 평소 전시에서 소외되어 있던 어르신들은 모처럼만에 눈과 마음을 활짝 열고 곳곳에서 소곤소곤 작품에 대한 훈훈한 품평회를 여는 모습이었다. 일주일간 열린 전시회에는 약 400여명의 어르신들이 관람을 하며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time : 2009. 6. 13(토) 14:00~18:00

place : 중앙공원

## 〈붓 갖고 놀아보세 –나만의 부채만들기〉

6월 13일, 중앙공원을 거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부채 하나 씩을 가지고 한 여름의 열기를 식힐 수 있었다. 그 날 인의예지 팀은 시민들과 함께 부채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붓 갖고 놀아보세 라는 제목에 걸맞게 노인들은 주름진 손으로, 어린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저마다의 붓을 들고 부채살을 채운 한지 위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풍경을 그려 넣었다.

행사에 참여한 클럽 회원들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에 하나 뿐인 자기만의 부채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time : 2009. 8. 31(월)~9. 5(토)

place : 분당여성회관

## 〈가을향기 속으로〉

인의예지 팀은 분당여성회관에서 가을 향기 속으로 라는 제목 아래 세번째 전시회를 열었다.
클럽 회원들의 멋진 작품들은 행사의 제목처럼 가을 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수준 높은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며 약 400여명의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전해주었으며, 전시 기간 중에 나만의 핸드폰 고리 만들기 체험 행사도 함께 열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다.

## 사랑의 힘

팀장: **김성운**(줌인세상)

아름아띠, 새나희, 줌인세상, 아트엔테라피, 분당중앙수채화, 연우회, 성남누드크로키 등 7개 클럽들이 크로키, 수채화, 유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해 사랑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총 세차례의 전시와 체험학습을 펼쳤다.
지금까지의 전시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병원 갤러리 재래시장 등 문화를 필요로 하는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다만, 재래시장인 성호시장에서 열기로 했던 전시와 체험행사는 우천으로 취소되었다.

time : 2009. 5. 20(수)~27(수)  place : 국군수도병원

### 〈사랑나눔 1〉

사랑나눔 첫 번째 행사는 군국수도병원에서 전시와 강연으로 진행됐다.
로망스기타합주단의 오프닝공연과 함께 문을 연 전시에서 환우병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유화 사진, 수채화 작품들로 국군수도병원 1,2층 로비가 가득 채워졌다. 미술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치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아트 테라피에 대한 강연도 환우병들을 대상으로 1회 실시됐다.

time : 2009. 7. 3(금)~9(목)

place : 율 갤러리

## 〈사랑나눔 2〉

사랑나눔 두 번째 행사는 아트 스페이스 율 갤러리에서 진행됐다.
수채화, 크로키, 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하여 자연과 삶에 대한 깊은 사색과 표현을 시도한 작품들은 아마추어를 넘어 전문 예술가에 못지않은 작품성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했다.
전시 오픈 행사에서는 성남만돌린기타챔버가 참여해 아름다운 연주로 전시장을 더욱 빛내주었다.

## 찾아가는 문화특공대

팀장: **한병조**(성남탄천문학)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있는 곳, 이야기야 놀자, 성남탄천문학회 등 3개의 클럽이 주축이 된 찾아가는 문화특공대는 각 클럽들의 고유 영역을 살리면서 서로에 대한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 총 3회에 걸친 좋은 행사를 보여줄 수 있었다.
특히, 여러 찬조 공연팀을 초청하여 정적인 느낌이 강한 클래식과 문학 행사를 대중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

time : 2009. 6. 12(금)

place : 분당종합 노인복지회관

## 〈아름다운 음악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되어 열린 첫 번째 음악회는 평소 음악 감상의 기회가 적었던 성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잘 알려지고 편안한 음악들을 선곡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피아노 5중주 송어 등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들로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었고, 2부에서는 분당재즈앙상블이라는 제목으로 분당색소폰클럽의 공연이 이어졌다. 성남 6mm클럽은 이날 음악회를 카메라에 담아 소중한 기록으로 남겼다.

## 〈전래 속으로 고! 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모임인 책이랑 냠냠과 이야기야 놀자가 중심이 된 '전래 속으로 고고'는 크게 네 개의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시마당에서는 탄천문학회의 시화전과 원화전시가 이루어졌고, 체험마당에서는 분당여성회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벼룩시장이 열렸다. 벼룩시장 옆에는 부채만들기, 투호던지기, 떡매치기, 천연염색 등 갖가지 전통놀이를 함께 즐기는 전래놀이마당이 펼쳐졌고, 공연마당에서는 가야금과 풍물공연이 전개 되어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마당을 선사했다. 한편, 줌인세상이 행사를 카메라에 담는 작업으로 함께 참여했다.

time : 2009. 7. 4(토) 13:00~17:00

place : 정자동 한솔 7단지 노인급식소

## 〈시가 흐르는 풍경〉

성남탄천문학회가 중심이 되어 열린 시가 흐르는 풍경에서는 시화전, 시낭송 및 노래공연, 문학강연 등 다채로운 내용들로 꾸며졌다.
먼저, 1부에서는 시인 김명옥의 시감상법과 낭송가 박영애의 시낭송법의 강연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탄천문학회 회원들의 작품은 물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등 어린 시인들의 시들, 그리고 중국 두보의 시와 애드가 알렌 포우의 영시 등 다양한 느낌의 시작품들이 낭송되었다.
또한, 성남만돌린기타챔프와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시낭송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 아름다운 선율로 행사장을 채워주었다.

time : 2009. 9월 12일 10:00~17:30

place : 율동공원 책 테마파크

# 사랑방 홀릭에 빠진 사람들

❶ 종이 울렸다. 자율학습은 공연 중. (자율학습밴드_박병준, 심원보, 김우중)
❷ 노노소소 부부자자. (하옥남) ❸ 사랑방오케스트라의 꿈. (이정구)
❹ 인생 3막을 색소폰으로 열다. (김경환) ❺ 나는 단지 자유롭고 싶었다. (조순희)
❻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병량) ❼ 최면에서 벗어나 그림을 만나다. (안윤환)
❽ 누드 그리는 할배. (이관배) ❾ 두렁 두렁, 문화 울타리 치자. (문정숙)
❿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백만기)

# part 3

삶에 매몰되어, 시간들이 습관처럼 흘러갈 때
우연히 만난 타인의 얼굴과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잊혀져있던 이름을 떠올릴 때가 없었던가.

사랑방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다.
여기 열 명의 사람은 사랑방을 함께 쓰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며,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종이 울렸다. 자율학습은 공연 중.

## 박병준, 심원보, 김우중 (자율학습밴드)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여름 율동공원의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락 음악 소리.
무대 위 밴드의 노래 한곡이 끝나자 좌중은 수런수런 흔들리기 시작한다. '선생님들이래' '선생님?'
'완전 아닌 것 같다!' '어디어디, 혹시 내가 아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라고. 궁금해 하면서 무대를 보니 근육질 팔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쫄티셔츠 기타리스트와
마이크를 집어삼킬 듯 노래를 부르며 휘적휘적 뛰고 있는 보컬이 눈에 들어왔다.
그랬다. 무대 위에 있는 사내들은 분명 선생님 같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선생님들이 맞다.
성남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선생님 락 밴드 '자율학습'이 바로 그들이다.

## ‘답지 않은’ 하지만 누구보다 선생님다운 그들.

자율학습 멤버인 박병준, 심원보, 김우중,  세 사람은 락 밴드 포지션으로는 기타, 보컬, 베이스,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으로는 각각 영어, 수학, 기술 선생님이다.

기타리스트 박병준 선생님과 보컬 심원보 선생님은 마흔 동갑내기고, 김우중 선생님은 마흔 아홉에서 나이가 멈췄다고는 하는데 실제 나이로는 쉰을 훌쩍 넘긴 나이다. 그런데도 밴드에 맞춘 코디 덕인지 세 선생님 모두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 락 밴드로서의 모습은 이런데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 송림중학교에 갔을 때, 그들은 모두 수업 중이었다.
“이 평션이 말이야.. 거기, 집중 안하냐. 너희들 인생에 회의가 들게 한번 만들어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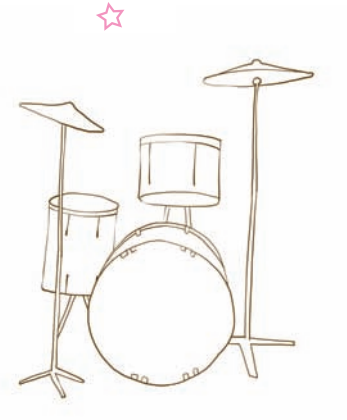
기술 과목이자 베이스 김우중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딴 짓 하는 학생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묵직한 베이스 현을 퉁기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니 '크크' 웃음이 저절로 났다.
영어전용교실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주며 '이 문제 못 풀면 떨어진다' 하는 박병준 영어 선생님과 분필을 들고 공식이 중요하다며 칠판을 탁탁 치는 심원보 선생님을 보니 그들이 무대 위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는 주입식 밴드입니다. 우리 노래에 박수 안치시면 분필 날아 갑니다' 하던.
학교에서 목격한 세 선생님들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말 선생님다운 모습 그대로였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대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이다.

락밴드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학생과 학부모들은 '완전 놀라는'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별 일 다 있는 요즘 세상에 선생님이 락밴드 하는 게 뭐가 특이할까 싶은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큰 이슈인가봐요"_박병준

올 여름 자율학습은 사랑방 문화공헌프로젝트 이매문화제에 초청되어 무대에 선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50여 차례 무대에 섰지만 송림중학교의 학군인 이매동에서 공연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 날 자율학습을 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행사장인 구렛들어린이공원이 미어 터질 정도로 몰려들었다. 이 정도의 관객 몰이나 이매동의 스타라는 별명을 보더라도 밴드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밴드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 시선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런데, 심원보 선생님의 말에서 그들의 심중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남한산성을 쓴 김훈 작가의 '답지 않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과연 선생님답다 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 '뭐 답다'라는 말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학습 멤버들 모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선생님답지 않은 음악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자유로움 속에서 학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종이 울렸다! 자율학습 시작!

금요일 저녁 8시면 선생님들은 야탑동에 위치한 뮤직스튜디오에 모여 연습을 한다. 그런데, 단체 연습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악기 레슨을 받기도 한다.
"그야말로 저희들도 자율학습 하는거죠^^" _김우중
자율학습이 생긴 지는 이제 6년. 자율학습 선생님들의 밴드 경력도 똑같이 6년이다.
"저는 박병준 선생님 기타가 너무 멋져서 한 번 만져본 죄(?)로 밴드 멤버가 됐다니까요" _김우중

원조 자율학습은 지난 2002년 송림중학교 축제를 위해 영어선생님 세 명과 학생 보컬 1명으로 결성됐던 일회성 프로젝트 밴드였다. 당시 기타 경력이 3년이었던 박병준 선생님이 밴드의 임시 리더 역할을 맡고, 축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렇게 반응이 좋을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학교에서 락 밴드를 한다는 건 뭔가 금기를 깨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필(feel)이 팍 온 거죠" _박병준

학교 축제에서 필 받은 박병준 선생님은 바로 정식 밴드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개인적으로 기타 레슨을 받으며 연주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하나둘씩 포섭하기 시작했다. 그

렇게 밴드 준비 단계가 딱 2년이 걸렸고, 박병준 선생님이 던진 치명적인 밴드에의 유혹에 빠진 선생님들이 바로 김우중, 심원보 선생님이었다.
보컬로 낙점된 심원보 선생님에게 선생님 가운데 노래를 가장 잘 불러서 뽑혔냐고 묻자 엉뚱한 답을 한다.
"아니요, 노래는 별루였는데, 얼굴이 잘 생겨서 뽑혔거든요" _심원보
말을 그렇게 했지만 심원보 선생님은 평소에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음악을 좋아하고 감상의 폭도 무척 넓었다고 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건 김우중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밴드 리더인 박병준 선생님은 그런 그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밴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일단 멤버 결성을 끝내고, 역할 분담에 들어갔다. 김우중 선생님은 기타 보다 좀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이유로 베이스를, 심원보 선생님은 보컬의 필수요소인 얼굴이 잘 생겼다는(?) 이유로 보컬을, 그리고 박병준 선생님이 기타를 맡았다. 그런데, 문제는 드럼이었다. 세 선생님들은 고민 끝에 인터넷 오디션 공고를 냈다.

"그래서, 오디션 경쟁률은 어땠나요?" _작가

"경쟁률이요? 한 분 오셨는데요.." _박병준
그 한 분이 지금의 드러머 홍종범씨다. 그런데, 미약한 경쟁률로 뽑힌 그였지만, 뜻밖에도 그는 아마추어 밴드계에 있어서 숨은 대어(?)였다. 알고 보니 송림중학교 2회 졸업생이기도 했던 그는 한때 프로 밴드에서 일했던 경력자였던 것이다. 20대에 프로 드러머로 활약하다 결혼과 함께 음악을 포기하고 IT 기술자로 15년 간 살아왔던 그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며 다시 드럼 생각이 간절해지던 차에 우연히 인터넷 공고를 보고 오디션을 보게 됐다.

"그 때 15년 만에 스틱을 잡는 거였거든요. 얼마나 떨리던지.. 다 까먹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몸은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다시 내가 연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홀하던지.. 아직도 그 순간의 느낌이 생생합니다" _홍종범

드디어 드럼까지 완벽하게 채워지고, 마침내 그들에게 종이 울렸다.
자율학습을 시작하라는.

## 행복을 자율 학습하라.

밴드를 만들고 무대에 서 온 지난 6년 동안 '자율학습'은 각자 행복을 자.율.학.습. 해 왔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 성적표에 어떤 평가의 글을 써넣을까. 먼저, 박병준의 성적표는 이렇게 시작됐다.

"지르고 싶을 때 지를 수 있고, 절실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밴드 음악이죠"
그는 딱 10년 전,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학교에서의 생활은 유난히 반복감이 많이 느껴진다. 학생들은 자신에 할당된 3년이란 시간을 지낸 후 떠나가지만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
"교사가 굉장히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직업이든 스트레스가 있듯 교사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는 편이죠. 방학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되면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구요"

박병준, 그는 기타를 통해 생활에 변화를 주고 행복을 찾는 자율학습에 충실해 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적표에 이렇게 두 번째 줄을 써넣는다.

"밴드의 화음이 잘 나오면 엔돌핀이 샘솟습니다. 그 엔돌핀으로 매 순간을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줄을 채워 넣는다.

"즐거움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대 위에서 엔돌핀이 솟으면 그게 누구에게든 전염되는 거 같아요. 예전에 남한산성에서 공연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신이 나서 나중에 고맙다고 큰 절을 하시고 돈 만원도 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트롯 노래도 아니고 그 시끄럽다는 락 음악에 할머니들이 왜 신이 나셨겠어요? 엔돌핀을 함께 나눴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대에 서는 것이 중독성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주고, 즐거워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심원보, 그의 성적표 첫 줄에 중독이라는 두 글자를 써넣는다.
"무대에 서면 세상이 달라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 같아요"

딱딱한 수학을 가르치는 이과 선생님이지만 그는 평소 문과나 예과에 더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했다. 또, 음악을 듣는 건 무조건 좋았다.

"내 안에는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꺼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그건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답답했죠. 그런데, 밴드를 하면서 그 잠재된 무언가를 꺼낸 느낌입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무대에 서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왕자병일까. 아니다. 그는 그걸 직업병이라고 그의 성적표에 써넣는다.

"사실 교사의 직업병은 뭐든지 세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배운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줘야 하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것처럼 즐거움과 행복도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는 게 직업병처럼 작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 행복을 나눈 것 같아서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그는 이런 직업병이 만끽되는 공연을 하고 돌아와 밤에 잠을 청할 때, 저절로 웃으면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밴드 멤버 중 큰 형님인 김우중의 성적표에는 어떤 글이 채워질까.
"베이스 기타의 깊은 저음처럼 인생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20년 넘게 학교의 자리를 지켜온 그의 묵직한 존재감은 그의 음악에서도 묻어나온다.

"베이스 기타 소리는 드러내놓고 음악을 이끌어가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게 그 음악을 풍부하게 받쳐줍니다. 저 또한 사람들 사이에게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는 그저 밴드에 합류하기 위해 베이스 기타를 배웠지만 이제는 베이스 기타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밴드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음악을 들으면 베이스 기타 소리가 가장 먼저 귀에 들어와요.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뛰는 소리 같아요. 둥. 둥. 둥. 둥. 심장이 울리는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소리요"

## 자율학습은 공연 중.

이제 자율학습은 성남을 넘어서 타 지역에까지 알려지고 있다. 다른 클럽들은 1년에 세 네 번 공연하기도 힘든데 자율학습은 족히 열 번은 무대에 오르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실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
"얼마 전에는 서울대 출신 사업가 모임 송년회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자율학습이 꽤 알려지긴 했나봐요. 처음 밴드 시작할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_박병준
처음 밴드를 시작하고 연습공간이 많지 않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라이브클럽을 빌어 연습을 하곤 했다. 그렇게 비싼 연습을 하고도 정작 연습실 밖으로 나갈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평가받고 싶기도 하고, 나름대로 무대에 설 자신감도 생겼는데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죠. 이러다가 밴드할 맛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사랑방문화클럽이 시작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_심원보

자율학습은 사랑방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느꼈다. 그래서, 어떤 클럽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 행사에 동참했다. 그런데, 사랑방에 대한 고마움, 기대가 컸던 만큼 활동하면서 아쉬움도 컸다고 한다.
"행사는 모여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클럽들과 화합을 이룬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 탓할 것 없이 나부터 반성해야할 것 같아요." _박병준

"음악을 하면서 즐겁듯이 마음을 열면 그림을 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관심이에요. 다른 분야의 클럽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_심원보
"동감입니다. 다른 클럽들이 뭘 하는지 모르면서 말로만 네트워크를 외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년에는 저희 자율학습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_박병준

음악이 뿜어내는 엔돌핀이 행복의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 동안 자율학습은 언제나 공연 중일 것이다.

노노소소 부부자자

## 하옥남 (연우회, 분당만돌린챔버)

공자의 가르침 중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라는 말이 있다.
군군(君君) 신신(臣臣),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부(父父) 자자(子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뜻으로 풀이될 수 있을까.
노노(老老) 소소(少少) 부부(父父) 자자(子子).

"노인은 노인답게, 소년은 소년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공자는 통치의 가르침으로 군군 신신 부부 자자를 말했지만, 저는 행복하게 사는 지혜로 이 말을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분당만돌린챔버와 연우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옥남 회원이다.
그녀는 자신의 좌우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

"순간순간, 자신에게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 순간을 살면서 딱 어울리는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가까운 행복은 보지 못한 채 너무 멀리 돌아서 큰 행복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사랑방은 매순간 행복을 찾게 해주는 길입니다"

백발을 굳이 숨기려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멋지게 가꾸며 사는 하옥남 회원.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까지 해보고 싶은 것을 시도해보면서 뭐든지 재미있게 하는 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한다.
과거 수학교사 10년, 유치원 원장 20년, 이렇게 30년 동안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더 욕심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덜 욕심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시절시절을 그저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오랫동안 평범하고 변화 없는 일상을 살아오면서 혹시 지치거나 회의를 느낀 적이 없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내 길이었고, 그때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그 대가로 지금 저에게 또 다른 길이 생긴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녀가 지금 사랑방을 통해 느끼는 행복은 어떤 모습일까?

## 아버지의 돌멩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큰 교훈을 주신 일이 있었어요"
어릴 적 그녀의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들어오시면 주머니에 꼭 한주먹이 넘는 돌멩이들을 넣고 오셨다고 한다. 가지고 온 돌멩이들은 그대로 마당에 쌓아두었다. 어린 마음에 그녀는 쓸모도 없는 돌멩이들을 왜 저렇게 가지고 들어오실까, 궁금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아버지, 저 돌멩이들을 왜 저렇게 모아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다 쓰시려구요?"
"응, 그거.. 아니다. 그냥 쌓아놓는 거야"

“쓰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데.. 왜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발이 채여 넘어지면 안되잖니. 어느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길가에 나뒹구는 돌맹이들을 그냥 지나질 수가 없더라. 그래서 보이는대로 주워오는 거지”
“그럼, 어디다 버리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내다 버렸다가 다시 길에 뒹굴게 되면 어떡하려구?”

사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마당에 쌓여있는 돌멩이들을 돈을 줄테니 팔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녀는 속으로 드디어 저 돌멩이를 모은 보람이 있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돈을 준다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돈이라뇨, 그냥 가져가슈”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다 싶었는지 이웃집 아저씨는 오랫동안 그 많은 돌멩이들을 모았을 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아버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욕심없이 세월가다보니 이렇게 모인 돌멩이들이요.. 언제 쓸모가 생길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써줄데가 생기니 다행이구려. 이런 내가 고맙다고 생각되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꼭 한번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소?”
그 순간, 아버지가 남긴 평범한 그 말이 그녀의 삶에도, 그리고 사랑방클럽활동을 하면서도 큰 가르침이 되고 있다.

“저는 아버지의 돌멩이들이 쌓여갔듯이 사랑방에서 천천히 배우고 싶고, 그 돌멩이들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됐듯이 사랑방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에서인지 동료회원들이 배우는 게 더디다며 답답해할 때 그녀는 늘 느긋해한다. 배우는 속도보다는 배우는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한, 사랑방에서 배운 그림과 만돌린을 가지고 소박하게나마 봉사도 하게 됐다.

매주 금요일마다 야탑 3동 주민센터에서 유화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매달 한번씩 은학의 집 노인들을 위해 만돌린 연주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보잘것 없는 제 연주에 집중해주시고, 정말 좋아해주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POWER
OF
LOVE

## 만돌린 합주 같은 사랑방의 화음을 전하고 싶다.

그녀는 앞으로 연주에 더 자신이 생기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
"언젠가 학교 강당에서 만돌린 합주를 공연할 때였는데,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너무 산만한 모습인 걸 보고 저 나름대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때 결심했죠. 아이들과 소그룹으로 만나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기회도 주는 시간을 갖겠다구요"
그녀는 평소 만돌린 합주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다.

서로 다른 파트의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결국 남의 소리들과 합쳐져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이 큰 감동이며, 음악적 하모니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연결해줘서 모두가 한 가족처럼 느끼게 되는 것도 무척이나 소중한 경험이다. 바로 그런 감동과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또한, 사랑방문화공헌프로젝트를 통해 본시가지의 재래시장에서 열었던 그림 전시를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꼽는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무슨 전시가 될까 의심했지만, 막상 그림을 전시해놓으니 상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더라는 것이다. 그때 그녀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성남은 참 행복한 도시인 것 같아요. 성남은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방에도 무척 고맙습니다"
고마운 만큼 사랑방에 아쉬운 점도 있다.

"문화통화를 버는 것에 비해 쓸데가 너무 부족해요 아마추어 화가들이나 연주자들을 위해 문화통화로 장기임대해줄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져서 그들의 창작활동에 더 불을 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으면서 큰 행복을 사랑방에서 찾고 있는 하옥남 회원.
그녀의 행복바이러스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돌멩이처럼 쌓이고 쌓여서 지금 어딘가에서 행복을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사랑방오케스트라의 꿈

## 이정구 (팬오케스트라, 글로리앙상블)

MBC에 강마에가 있다면 성남시에는 이마에가 있다!
멋진 수트를 입고 최신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한 곱슬머리, 정통 클래식이 아니면 우습게 생각하는 강마에와는 다르게, 이마에는 소탈한 옷차림에 백발이 성성하고 가요보다 더 쉽게 편곡한 클래식을 사랑한다.
진짜 마에스트로는 아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과 아마추어 음악인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가히 마에스트로의 반열에 오를 만하여 이마에로 칭하고 싶은 그 사람, 그는 글로리앙상블 이정구 회원이다.

그가 이끄는 글로리앙상블은 70이 훌쩍 넘은 할머니들이 기가 막힌 색소폰 앙상블을 연주하는 팀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실력은 성남에서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제 1회 대한민국 색소폰앙상블경연대회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전국구가 되었다.

지금은 그렇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글로리앙상블 할머니 멤버들 중 대부분은 사실 1년 전만해도 악보도 보지 못하는, 소위 음악에 문외한들이었다. 그러던 그네들이 이제 악보도 훤히 볼 줄 알고, 악표의 음표들을 멋진 색소폰 연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건 지휘자 이정구 회원의 의지와 노력에서 가능했다.

## 가난이 만들어준 음악 취미

“문화, 예술, 이런 거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예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70 넘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악보를 가르치며 클래식이 뭔지, 색소폰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일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정구회원은 음악을 좋아한다면 그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준급 할머니 제자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음악에 대해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스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 음악을 놓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 어릴 적엔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음악?’ 이랬어요. 그래도 난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쳇, 가난하다고 음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법 있나’ 하고 오히려 음악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의 어린 시절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참 가난했다.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꾸역꾸역 학비를 대가며 간신히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음악과는 거리가 멀다 싶었던 생활이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면서 그는 음악과 가까워졌다.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땐 LP판도 없는 시절이었죠.. 축음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참 좋더라구요”

그는 축음기가 있는 집이 정말 부러웠다. 어쩌다 축음기가 있는 곳에 갈 일이 생기면 뇌의 모든 기억의 회로를 돌려 그 음악을 머리 속에 저장하려고 했고, 운수가 좋아 귀한 악보까지 볼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종이에 그 악보를 본 떠 그려 놓았다.

"가난했으니까 음악이 더 귀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란 것이 지천에 깔려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귀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찮은 것이라도 구하기 힘들고 멀리 있다 싶으면 더 안달나잖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각하면 가난했던 우리 부모님이 참 고마워요"

그는 가난 속에서도 공주농업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후 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교사라는 평범한 길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

그는 음악을 좋아해온 자신의 취미를 십분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기억에 남는 음악활동을 많이 했다. 1973년 중학교 재직 시에는 어머니 합창단을 결성해 합창에 장구를 도입하여 쎈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59회 전국체전에서는 군악대를 동원하여 생음악에 맞춰 학생들 매스게임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어느 학교를 가든 그곳에 꼭 음악을 매개로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마지막 정년퇴임식도 음악과 함께 했다.

그의 지나온 이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듯이 그는 음악을 통한 어떠한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음악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라면 음악에 대해서 꼭 지켜야 할 격식이나 기본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의 특권이 뭐겠어요, 스스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된 거 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즐기면 더욱 좋겠고..."

글로리 앙상블 또한 이처럼 아마추어 음악에 대한 그의 열린 생각에서 탄생된 것이다.

## 창의를 중시한 교육의 길, 그리고 위암 시한부 삶까지 이겨내다.

그의 교육철학도 음악에 대한 것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열려있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생각들은 곧바로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인 시도와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나는 수학 교사였지만, 1+1=2 라는 식의 정해진 공식에 얽매여 사는 건 반대예요. 1+1=1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판에 박힌 교육행정 보다는 학생 중심의 새로운 교풍을 만드는 교육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런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교육계 전설을 만들기도 했다.
일례로 평택기계공고 교장 시절, 시골학교에 불과해 정원도 미달됐던 학교를 기능올림픽 개최 장소가 될만큼 발전시켰고, 뒤떨어졌던 학생들을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양성했다.
그러기위해서 그가 가장 처음 한 일은 교정에 단풍나무를 심고 아이들을 위한 목욕탕과 미끄럼틀을 만드는 것이었다.

“산에서 자라는 단풍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교정에 옮겨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 속의 흙과 똑 같은 흙으로 땅을 만들어서 단풍나무를 심고 일부러 거름도 주지 않고 키웠더니 정말로 아름다운 단풍나무로 자라더라구요”
단풍나무를 심고 그는 사재까지 털어서 교정에 아이들을 위한 목욕탕을 만들었다.
“시골의 가난한 아이들이라 잘 씻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매일 기계 기름으로 얼굴에 때가 지고 얼룩져도 마땅히 씻을 곳도 없고. 그래서 목욕탕을 만들고 비누와 세수대야를 한 60개씩 사다놨죠. 그랬더니 아이들 얼굴에서 광이 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그는 학생들을 기능올림픽에 출전시킬 준비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독려하는 대신에 아이들이 실컷 먹을 수 있는 밥과 김치, 영양제를 사다 날랐다고 한다.
“기계나 장비 들여놓고 밤낮으로 아이들 채찍질하며 연습을 시키면 그게 아이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명예 세우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산을 아이들 먹는 데 다 썼어요. 그리고 훈련도 일부러 많이 안 시켰어요. 적당히 놀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해야지 스스로 능률을 올리니까요“
그의 생각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서 그해 많은 메달리스트를 배출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밤을 새면 그도 같이 밤을 샜다고 한다. 아이들이 다루는 기계를 자신도 잘 알기 위해 아이들 틈에 끼어서 기계를 밤낮으로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평택공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여러 학교를 거치는 동안에도 그는 그런 한결같은 교장선생님이었다.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주변 교육계에서는 그를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호시탐탐 그를 강등시키려는 시도도 많았다.  그 와중에 위기를 겪기도 했다.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의사가 나보고 2년 살면 잘 사는 거라고 하대요. 참 기가 막히대요. 근데, 내가 위암 선고를 받았다니까 교육부에서 바로 시골학교로 좌천을 시키더라구요. 교장까지 해놓고 그 때 우리 집은 고작 열 두평 전셋집이었어요. 회의감이 들더라구요. 이제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집 한칸은 마련해놓고 죽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정말 죽을 각오로 살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있네요^^ ”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위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의 삶에서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자신의 교육철학 그대로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결심했던 대로 가족들을 위해 집도 마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음악을 절대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악의 힘일 겁니다. 언제나 음악이 나를 위로해줬고, 힘들 때마다 음악이 나를 잡아주었으니까요. 위암 투병에서도 음악의 힘이 컸죠"

## 사랑방 오케스트라의 꿈

어릴 적, 귀동냥 하듯 들었던 희미한 음악의 선율.
하지만, 그 선율은 평생 동안 그의 삶에서 아주 강렬하게 유지 돼왔다. 그는 그 음악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고자 노력해왔다. 교육자의 길을 걸을 때는 학생들과 더불어 했다면 , 이제는 음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음악을 나눌 차례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남녀노소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다 모여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사랑방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 그는 지금 사랑방에 소속된 음악 클럽들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누구든지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곡으로 악보를 다시 만들고 있다.

또 하나의 계획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악기를 보급해 그들에게 악보를 가르쳐 주고 함께 오케스트라를 하는 것이다.

“제 어릴 적도 그랬듯이 음악과 친해지고 싶어도 형편상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보고 싶어요. 이 일이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내 인생의 결정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구 회원이 지휘하는 글로리 앙상블이 무대에 올라 연주 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했을 것이다.  아, 참 멋진 광경이라고. 그리고는 가슴이 뭉클해졌을 것이다. 그 뭉클함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가 지휘하는 사랑방오케스트라를 기대해 본다면..

인생 3막을 색소폰으로 열다.

## 김경환 (분당늘푸른색소폰)

만나교회 앞 대로변에 45인승 버스 한대가 탄천을 바라보며 서있다. 탄천변 앙상한 나무에 달려있던 마른 잎 새들이 바람에 날려 노란색 버스 창문에 바짝 붙었다 이내 어디론가 다시 날아간다. 나뭇잎 붙었다 날아간 유리를 통해 버스 안을 들여다보니 한 남자가 색소폰을 불고 있다. 분당늘푸른색소폰 김경환 회원. 그는 색소폰 부는 기사 아저씨다.

"아저씨, 또 색소폰 불고 계셨어요? 지난번 교회 행사 때 색소폰 부시는 거 봤어요"

좀 일찍 버스를 타러 온 한 학생이 말을 건네자 쑥스러운 듯 그가 대꾸한다.

"어, 그래.? 어땠냐, 아저씨 색소폰 실력이..?"

"되게 근사하던데요! 종종 저희한테도 불어주세요(웃음)"

## 버스에서 색소폰 부는 싸나이~

그는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교회신도나 학원생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한다.
학생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끝나기를 기다리는 짬짬이 그는 버스 안에서 색소폰을 분다.
색소폰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8년 1월, 실력은 이제 갓 초보딱지를 뗀 정도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클럽에서 무대에 가장 자주 오르는 사람 중 한명이다. 악보 보기를 마치자마자 음정이야 어떻든 곡을 1, 2절 다 불 수 있게 된 때부터 그는 무대에 올랐다.
자신이 다니는 영도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연주를 하고,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매문화제에도 두 번이나 섰다.

"저는 무대 체질인가 봐요."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선량한 눈빛을 가진 그는, 자신이 무대체질이라며 너털웃음을 지어보인다.
그러나 그의 웃음 뒤에는 참 어려운 사정이 숨겨져 있었다. 색소폰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 어려운 사정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 인생 1막의 불행

그가 성남에 온지는 만 10년. 성남으로 오기 전 그는 인천과 울산을 오가는 시외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부족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은 불의로 닥친 한 사건 때문에 한 순간에 깨져버리고 말았다.

1999년 6월 19일. 당시 열 여덟 살이던 큰 딸은 오랜만에 경기도 광주 이모집에 놀러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아직도 집을 나서며 들떠있던 딸아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예뻤는데.."
딸아이의 웃음을 보는 게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

큰 딸은 광주에 다 도착해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사고 후 분당 인하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딸 소식을 듣고 울산에서 분당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딸은 온몸이 다 으스러지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다. 며칠을 두고 봐도 의식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의사가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가망이 없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숨이 붙어있는데..”
딸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성남으로 터전을 옮긴 후 중환자실을 지켰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딸이 다시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그의 간절했던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인지 딸은 의식을 되찾게 되었다.
“죽을 줄만 알았던 딸의 의식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던지..딸이 다시 태어난 것 같더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다. 딸은 의식만 돌아왔을 뿐, 온 몸에 퍼져있는 운동신경이 다 죽어서 보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다. 딸이 할 수 있는 건 말하고 듣는 것 뿐.
“그때부터 딸이나 가족이나 모두 고행이 시작된 거죠. 10년동안 딸은 누워서 앞도 못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듣고 말하기는 해서 의사소통은 되지만 그래도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24시간, 365일 누워있는 딸과 함께 지내며 그도 아내도, 모두들 지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밝게 살려고 노력했다.
“찡그려본들, 울어본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고 살아야죠. 그래야 살 힘도 생기구요. 하하”

이런 그가 무슨 죄라고, 그가 겪어야 할 일이 또 생기고 말았다. 큰 딸의 사고가 인생역경 1막이었다면, 인생역경 2막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 인생 2막에 나는 벗어나고 싶었다.

인생역경 2막의 주인공은 둘째 딸아이.
언니와 10년 터울이 나는 작은 딸은 육상에 소질이 있어 특기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워낙 뛰기를 잘해 감독이 고등학교는 물론 향후 실업팀이든 대학이든 탄탄대로로 보장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할 정도였다. 비록 큰 딸은 불행하게 살게 됐지만, 작은 딸만큼은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날 밤, 전화 한통이 걸려오면서 그의 바람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특기 장학생으로 뽑힌 작은 딸은 합숙훈련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전화의 내용은 합숙소에 들어가있어야 할 작은 딸이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저는 누구한테 납치된 건가, 하고 노심초사했죠. 그런데, 코치의 말로는 스스로 도망친 거라고 해요. 그럴 리 없다고 해도 코치는 그랬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없이 한 주, 두 주.. 시간만 흘러갔다. 미칠 것 같았다.
"사람이 돈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다니까요. 살짝만 건드려도 나침반 돌아가듯이 정신이 휙하고 돌아갈 것 같더라구요"

이래서는 안 되었다. 자기가 정신 못차리면 누워있는 큰 딸은, 그리고 딸과 맨날 씨름하며 인생을 보내는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돌파구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그게 절실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게 됐다. 마치 절규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닮은 소리, 바로 색소폰 소리였다

"색소폰 연주를 듣고 바로 아내에게 달려가서 나 이대로 참기만하다가는 명대로 못살 것 같다구 했죠. 그랬더니 뭘 하고 싶냐고 아내가 묻더라구요. 색소폰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무말 없이 50만원을 주더라구요"

생각해보면 아내에게 참 미안한 일이다. 그는 그나마 일하느라 바깥 바람이라도 쐬고 다니지만 아내는 집에서 꼼짝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아내에게 나 살겠다며 돈을 달라고 하다니. 그런데도 군말 없이 50만원을 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웠다.
아내 뿐 아니었다. 색소폰 얘기를 꺼내고 방을 나서는데 큰 딸이 부르는 게 아닌가.
"아빠, 책상서랍을 보면 돈이 조금 있을 거예요. 한 20만 원쯤 될 거예요. 그걸로 보태세요"

그 돈은 누워있는 아이가 가여워 신도들이나 친척들이 놀러 와서 한푼 두푼 주고 간 것을 모아둔 돈이었다. 와락 눈물이 났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렇게, 아내와 딸이 준 돈으로 색소폰을 살 수 있었다.

그야말로 눈물의 색소폰이었다.

"색소폰을 부니까, 정말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더군요. 전에는 버스에서 우두커니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청승스런 생각만 들고, 둘째 딸아이 걱정이 더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색소폰을 부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색소폰을 사고 이틀 후에 작은 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지금까지 딸은 마음을 잡지 못한 채 가출에 가출을 반복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아예 다니던 고등학교도 자퇴해버렸다. 말려도 듣지 않는 고집이어서 이제 그로서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색소폰으로 연 인생 3막

무언가에 끊임없이 끄달리면서 자신을 잃어갔던 삶.
그는 이제 색소폰과 함께 조금 다른 생을 살고 싶어졌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기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색소폰을 불면서 깨닫게 됐다.

"모든 문제를 좀 여유있게 생각하게 됐어요. 큰 딸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딸아이를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는 색소폰 부는 마음으로,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색소폰을 통해 행복을 찾으면서 가장 처음 시도한 것이 바로 교회 장애인들을 위한 연주였다. 막 기초만 떼고 무대에 올라서 첫 연주는 정말 엉망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잘 것 없는 소리 한 자락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행복에 대해 한수 배우게 됐다.

"목사님이 얼마 전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집사님 색소폰 연주 들어주느라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고 말이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애인 신도 한 분이 '꼭 아코디온 소리 같았어요'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코디온 같은 색소폰 소리가 얼마나 형편없었겠는지, 하지만 그들은 아코디온이냐 색소폰이냐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소리에 담긴 내 마음을 들어주신 거죠"

그는 클럽 회원 중에서 가장 진도가 더딘 편이라고 한다. 그래도, 답답해하지 않다.
"색소폰을 얼마나 잘 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소폰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색소폰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걸 찾은 것 같습니다"

노란 버스 안에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을 김경환 회원. 인생 3막은 역경이 아니라 색소폰과 함께 열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을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그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색소폰으로 자유로워졌고, 무대에 서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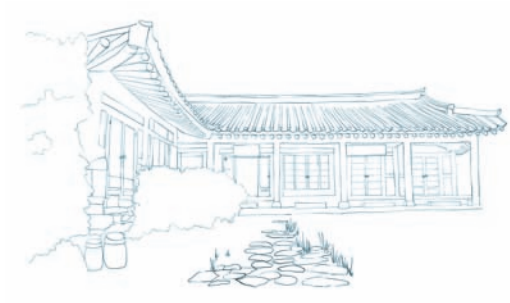
"앞으로 사랑방행사에 저 빼지 말고 자주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의 색소폰 소리가 버스를 울리고, 거리를 울리고, 사랑방을 울리고 있다.

나는 단지 자유롭고 싶었다.

## 조순희 (수람회)

"저는 종갓집 며느리랍니다"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말할 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상징하는 단어 몇 개쯤 가지고 있다. 조순희 회원에게는 종갓집 며느리가 그 첫 번째였다.

이십대 중반에 7대 종손인 남편과 중매로 결혼한 후, 아니 어쩌면 그 훨씬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그녀는 '조순희' 라는 이름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지나치게 엄격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에는 아버지의 얌전한 딸로, 결혼 후에는 야무지고 참한 종갓집 며느리가 그녀의 이름을 대신했다. 워낙 몸에 밴 이력이 도덕적(?)이다보니 두 아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엄한 어머니' 가 되었다.
"살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다분히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들고 무조건 틀에 옭아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딸로서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사는 삶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게다가 그녀는 결혼해서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척 컸다.
"시아버지가 종갓집 재산을 사업한다고 다 망해먹는 바람에 종갓집의 그 큰 살림이며 그 많은 제사들이며
모두 종손인 남편이 일찍부터 몽땅 책임져야했죠. 그래서 남편은 책임감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일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토목 사업에 종사한 남편은 직업상 일 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지방에서 보내야 했다.
자연히 집안에는 남편의 빈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까지 그녀가 대신 채워야 했다.

이렇게 산 삶이 무려 30년이 넘는다. 그녀는 그 오랜 세월동안 자기 자신과 끝도 없는 싸움을 해야만 했다.
그녀 내면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했던 화두는 바로 '자유' 였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내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엄격함에 매달려서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은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고
항상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이런 모순에 빠져 살면서 그녀는 두 아들과의 갈등이 무척 컸다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몸에 배어 아이들에게도 한결같이 엄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은 말문을 닫은 채
엄마와 소통하려 들지 않았죠. 그러니 저는 저 나름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에게서 벗어나서 훨훨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녀는 남편이 자유의 통로가 돼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남편이 오는 주말이 되면 언제나 남편과 함께
떠나기 위해 여행 꾸러미를 챙겨놓고는 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로서 못다한 일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기도 바쁜데 무슨 여행이냐며 그녀를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다.
"그땐 정말 단 하루라도 남편과 여행을 가서 마음을 좀 뻥 뚫고 오고 싶었어요. 너무나 소박한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여행은커녕 자유로운 단 몇 시간도 허락되지 않더군요"

## 그림이 해방구

아이들과의 갈등 속에서 시쳇말로 자유는 물 건너가는 건가 하면서 어느 새 두 아들 모두 대학생이 되었다. 그렇다고 단박에 그녀 인생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다.
그녀 눈에는 이제 고삐 풀린 청춘인 아들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보였고 이것저것 간섭할 것이 더 많았으니까. 머리가 커버린 두 아들과의 갈등은 그녀 내면의 얼굴을 더욱 푸석하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2000년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진 정자 1 동사무소 회람을 읽게 된 그녀. 회람은 동사무소 문화프로그램에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조순희, 넌 지금까지 뭐했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뭐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
그런 생각이 그녀 마음을 붙들자 슬슬 오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작정 동사무소로 달려가 신청서를 앞에 두고 앉았다.
" '근데 뭘 신청하지?' 고민이 되더라구요. 신청서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그냥 일단 플룻을 신청해버렸어요. 배워두면 혹시 나중에라도 타악 음악을 전공하는 큰아들과 같이 연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별 열의도 없었고 악보 보는 방법마저 모르는 상태라 역시 재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얼마 지나 '이번에는 수채화를 배워볼까' 하며 별 기대 없이 반을 바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림은 너무 재미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림을 그리고 난 후면 마음이 날아갈 듯 홀가분해져있었다. 뿐만아니라 그림을 그린 후부터 그녀는 두 아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무척 유연하게 변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서로 자유롭게 살자고 약속을 한 것처럼 굉장히 편해져있더라구요.. 비로소 난 깨달았죠. '이게 바로 자유로운 나구나..' "

그림이 그녀에게는 해방구였던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보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녀는 자유로워진 것이다.

## 틀을 깬 열린 소통

그런데,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다. 그림을 함께 배우고 같이 수람회를 조직해 활동하는 대부분의 동년배 주부들이 지금까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왔고, 자신처럼 그림을 통해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으로는 그림을 그리지만 마음으로는 클럽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보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랄까.."

그림은 사람들끼리 열린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을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클럽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수십년간 그토록 집착했던 '틀'을 깨게 되었다.

"그림 속에는 무한히 넓은 가능성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엄격하고 도덕에만 충실한 그림은 재미없잖아요. 사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의 틀을 깨듯이 삶의 틀도 조금씩 깰 수 있어야겠죠"

그녀에게 사랑방문화클럽도 또 하나의 틀을 깨는 작업이다.
사랑방문화클럽에는 자유를 꿈꾸고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와 예술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방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은 다시 그녀의 그림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온다.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림에 더 욕심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나만의 그림세계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 그녀가 꿈꾸는 가족예술단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서 살다가 그림을 통해 조순희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고, 비로소 그림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그녀.
그녀에게 그림이 중요한 만큼 그녀는 자신에게 그림을 배울 기회를 준 성남과 그림을 나눌 수 있는 전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참 고맙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사랑방문화클럽에 관한 일에 발 벗고 나서서 일 한다.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과거의 저나 수람회 친구들처럼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사랑방을 많이 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클럽을 찾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사랑방문화클럽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랑방문화클럽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클럽회원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꼭 자신의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예술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성남과 사랑방문화클럽을 보다 널리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다.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는가. 과연 그녀의 가족예술단은 어떤 모습일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 김병량 (분당색소폰클럽)

"교수님, 오늘도 색소폰 불러가세요?"
강의실의 문을 열고 황급히 나가는 교수님을 향해 학생들이 묻는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에서 '색소폰 부는 교수님' 으로 통하는 사람, 김병량 회원.
"그래, 색소폰 불러 간다"
색소폰 불러가는 교수님 입가에 벌써부터 행복한 미소가 번져있다.

## 목표가 사라진 순간에 다시 시작할 그 무언가

대학교수, 녹색 소비자 연대 공동대표,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등등 남자로서 참 괜찮게 성공했다는 증거가 될만한 직함을 여럿 가지고 있는 김병량 회원. 그는 넘치는 직함에 또 하나 중요한 요직을 더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분당색소폰클럽 회장직이다.
많은 감투를 쓰고 그에 걸맞는 충분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분명 아주 바쁠 것이다. 그렇게 바쁘면서도 그는 색소폰을 절대 놓지 않는다.

“어떻게 시작한 색소폰인데요, 색소폰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엘리트 코스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방 명문 고등학교와 최고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 유학을 다녀와 남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되었고, 명망 높은 사회적 지위도 얻었다. 이렇게 많은 인생의 가치들을 성취했건만 색소폰이 다시 목표라니.

“연극이 끝나면 배우들은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라토너들은 결승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 앉거나 코칭스태프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죠. 우리 또래의 남자들은 연극이 끝난 직후거나 결승점에 도달한 순간일 겁니다”(아저씨 락밴드를 결성하다 중에서)

그의 이 말처럼 더 이상 목표가 없다는 허탈감에 빠진 순간 다시 시작할 그 무언가가 그에게는 바로 색소폰이었던 것이다.

x x x x x x x x x x x

## 색소폰, 꿈의 기억에서 인생의 한 부분이 되다

"좀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가끔 들어요. 어린 시절 꿈이 음악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부모 같은 형제들 틈에서 자란 어린 막내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응석을 부리기보다는 일찍 철이 드는 쪽을 택했던 거 같다. 일찍부터 말썽 안 부리고 공부도 잘 하는 모범생으로 낙인찍혀있던 그가 학창시절 딱 한번 반항 아닌 반항을 했다가 호되게 혼이 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색소폰 때문이었다.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멋을 아는 모범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밴드부에 들어가서 색소폰을 불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딱 하루 색소폰 만져보고, 그 이튿날 가족들이랑 선배들한테 날라리 될 거냐며 된통 혼나고 밴드부를 그만 뒀어요"

허망하게 밴드부를 그만 두고 차라리 밴드부를 맘껏 할 수 있는 실업고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을 부러워했었다.
그 후로 근 30년 동안 색소폰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잡고 살았다. 딱 하루 만져보았던 색소폰의 감촉도 잊혀지지 않았다.
"색소폰 학원 간판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우연히 악기점을 지날 때면 손바닥이 근질근질거렸어요. 그렇게 색소폰을 불고 싶었지만 그 땐 미뤄둘 수 밖에 없었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2001년, 마침내 색소폰을 잡게 됐다.
"동사무소에서 전단지가 하나 왔는데 색소폰을 무료로 가르쳐준다잖아요. 옳다구나, 지금이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고 당장에 악기를 샀죠"

그런데, 30년을 묵혀 둔 열정이었건만 막상 시작하니 흥이 잘 안났다. 아니, 흥이 날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색소폰을 불어도 실력은 잘 늘지 않고, 무엇보다 색소폰을 열심히 불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연습할 곳도 없어서 혼자 인적 드문 공사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무슨 흥이 났겠어요"

그렇게 색소폰 1차 시도가 별 성과 없이 무너진 후, 또 몇 년이 흘렀고, 그 사이 색소폰은 집 한구석에 걸려서 고이고이 잠자고만 있었다. 잠자는 색소폰이 항상 맘에 걸려 언젠가는 해야지해야지 하던 그는, 드디어 4년 전 2차 시도를 감행했다.
"차오를 만큼 다 차오른 느낌, 아세요? 제가 그때 더 이상 차오를 수 없을 만큼 색소폰에 대해 갈망했던 거 같아요.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대학원 원장에, 나라에서 하는 도시개발프로젝트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소폰을 다시 시작했고 다시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색소폰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동호회라는 동기부여가 크게 작용했다. 더 이상 공사장을 떠돌 필요 없이 자정 넘긴 새벽에도 동호회 연습실에서 가슴 뻥 뚫릴 때까지 색소폰을 불었고, 색소폰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도모할 일들도 많이 만들었다.

"동호회에 속해 색소폰을 불다보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더라구요. 그렇게 점점 내 생활에서 색소폰과 동호회의 자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죠. 색소폰이 더 이상 꿈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됐습니다"

## 교수에게도 로망은 있다

동그란 안경에 펴머 머리, 무대의상을 입고 색소폰을 부는 그의 모습은 학계에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얼마 전에 국토도시계획학회 50주년 행사에 이사 자격뿐만 아니라 색소폰 연주자로 초청받은 일이 있었어요. '학회' 그리고 '50주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듯이 아주 무거운 자리였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사에는 공연이 없는 것이 보통이구요. 따라서 매우 긴장이 되었죠."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행사 이후 그의 연주가 정말 좋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특히,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는 행사 당시 김병량 교수가 양복입고 진지하게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무대의상으로 대 변신을 하고 무대 뒤에서 색소폰을 들고 걸어나오는 대목에서 모두 기절 직전의 놀라움이었다고 회자되고 있다.
"무대는 많이 서봤지만 수많은 교수들이 저를 보고 놀라고 있는데, 그 기분이 묘하대요. 업 된 기분으로 유레이즈미업을 불었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최고의 연주였던 것 같아요. 연주 후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바로 이런 순간이 남자들이 꿈꾸는 바로 그 로망이 아닐까.

그는 색소폰과 함께라면 파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색소폰 연주를 할 땐, 가장 멋진 색소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예전보다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연주자로서 코디에 관심이 많다.
"길거리 지나다보면 도대체 누가 입나 하는 옷들 있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런 옷들을 바로 김병량이 입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때와 장소에 맞는 코디 공식도 가지고 있다.

실내공연에서는 화려한 반짝이 의상, 야외 공연이나 밤공연에서는 흰색 남방에 블랙 바지를 선호하고, 노인들이 많은 자리에서는 꽃무늬 남방을, 젊은이들이 많을 땐 찢어진 청바지에 체인을 단다.

“딸애랑 와이프가 이제는 제 코디에 더 신경 쓰죠. 한번은 꽁지머리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디서 그걸 사왔더라구요. 언제한번 제가 꽁지머리 하고 색소폰 부는 모습 보러오세요”
처음에는 주책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건 그의 괜한 걱정일 뿐이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해줬다.
덕분에 그는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 짱’ 교수가 됐고, 동료 교수들 중에는 그런 그가 부러워 색소폰을 배우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 타인의 감동에서 얻는 큰 위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색소폰이 단순히 로망의 도구인 것만은 아니다.
색소폰을 통해 그는 타인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이 일체되는 감동을 경험한다.

"언젠가 지체장애 여성이 천명 정도 수용된 복지시설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는 무조건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노인들부터 해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기쁘고 좋으면 몸이 느끼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밖으로 표출해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죠.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날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솟아져버린 적이 있었어요. 연주를 못할 정도였죠. 그들을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구요"

그는 지난 4년 동안 한달에 한번씩 빼먹지 않고 노인시설 봉사연주를 하고 있다. 휠체어에 멍하니 앉아 있던 노인들이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점점 활기있는 표정으로 변할 때 그는 정말 강렬한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

"봉사연주는 결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 연주를 듣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 자신이 오히려 큰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 도시 전문가 김 교수는 어떤 도시를 꿈꾸나

그는 도시를 계획하고 만드는 전문가다. 그럼 도시 전문가 김교수는 어떤 도시를 꿈꾸고 있을까.

"경계가 허물어진 커뮤니티 안에서 문화가 뛰어놀고, 주민들 모두 거기에 스펀지처럼 흡수되는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클럽 이름이 필요치 않는, 문화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흡수된 도시, 참 좋은 세상이겠죠?"

그가 꿈꾸는 도시를 위해 그는 복잡한 그래프나 설계도 대신 클럽활동에서 그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다. 소속 클럽인 분당색소폰동호회나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헌행사에 누구보다 열정을 쏟고 발로 뛰어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 까닭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2009년 정자동 새터랑의 팀장을 맡으면서 무엇보다 지역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떤 행사를 하든 기획 단계부터 목표의식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 다분히 의무적인 행사에 그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저나 정자동 새터랑팀은 그 목표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노력의 결과였을까. 새터랑 팀 공연이 있을 때면 정말 마을이 떠들썩했었다.

꿈꾸는 도시가 당장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결코 꿈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최면에서 벗어나 그림을 만나다.

## 안윤환 (중앙수채화)

사랑방문화클럽 행사 어디든 만날 수 있는 사람, 행사장에서 가장 크게 웃으면서도 가장 진지한 사람,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언제든 솔직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따뜻한 맏언니, 큰누나처럼 사랑방을 보살펴주는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며 무릎을 치는 사람, 바로 안윤환 부위원장이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사랑방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온 클럽지기 중 한 명이다.
그래서, 2009년에는 부위원장직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보다 사랑방 클럽활동을 하는 3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소극적인 편이셨어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녀의 답은 '2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아내이고 엄마였죠, 뭐!' 였다.

## ‘착한 콤플렉스’에 최면 걸린 삶

그녀는 사랑방을 만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예전에는 기껏해야 집안일이잖아요. 활동 범위가 좁았죠. 그런데 사랑방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위치를 설정하게 된 거죠.”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집안 울타리에서 별로 벗어날 일이 없었다.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은 애초에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유난히 외부활동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무슨 일이 그리도 많으신지 매일 집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때부터 제 꿈은 현모양처로 마음속에 각인되어 버렸어요. 나는 커서 가족들에게만 사랑을 주는 그런 엄마와 아내가 되겠노라는 최면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녀의 바람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 대학 졸업 후 화실을 운영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 지금의 남편이 워낙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가슴 설레는 연애 한번 못해보고 그냥 결혼에 골인해버렸단다.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저 스스로는 제가 현모양처라고 생각했으니까 저의 어릴 적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이들 키우랴, 남편 내조하랴, 맏며느리여서 집안 대소사 챙기랴, 그녀는 20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녀는 성격이 밝고 단순명료한 편이어서 무슨 일이든 복잡하게  따지지 않다보니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일 수 있었다.
그런 그녀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6년 전 우연히 클럽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녀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게 된 후, 수강생들과 함께 동호회를 만들었고, 우연찮게 클럽지기도 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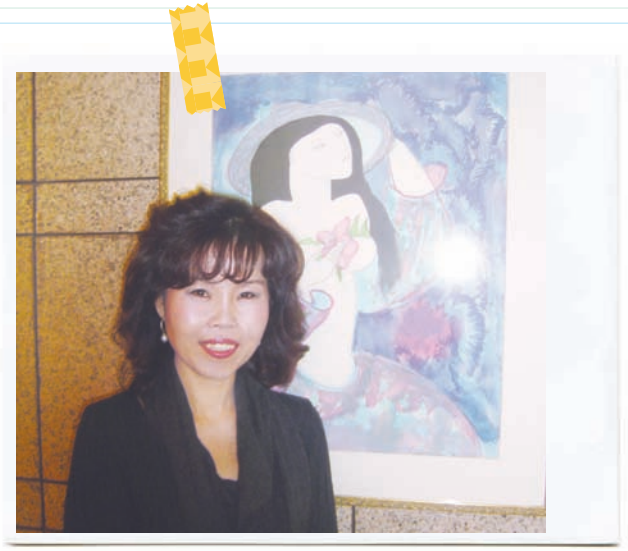
"동호회에서 대표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동호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별 부담 없이 회장직을 맡기는 했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회원들에게 능력도 인정받았다.  6년 여 클럽지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 전부터는 사랑방문화클럽에도 활동영역이 생기게 되었고, 급기야 지금은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그런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단다.

“클럽활동을 하기 전에도 행복한 삶이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최면에 걸린 삶과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살려고만 노력하는 ‘착한 콤플렉스에 걸린 삶’ 이라고나 할까요?”
클럽과 사랑방활동을 하면서 그녀는 최면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최면에서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보게 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내 자신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그 전에 나는 내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욕구를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매순간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굳이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기만 하면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안 되죠. 이미 최면은 풀렸으니까요.(웃음)”

그녀는 최면이 풀리니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며 얻는 행복이 하나 더 추가되었기에.



## 클럽에 변화를 주기 위해 우연히 두드린 사랑방클럽.

사랑방 활동을 하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물 만났다'는 표현을 한다.
그만큼 그녀는 사랑방 일을 즐거워하며, 거침없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방 클럽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선택 '사랑방'은 사실 굉장히 우연스럽게 찾아왔다. 당시 3년 째 중앙수채화클럽을 이끌고 있었던 그녀.

"그때까지 클럽은 회원들끼리 단합도 잘 되고, 1년에 한 번씩 전시도 잘 하며 별 탈 없는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막연한 결핍감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면 성취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러던 차에 우연히 성남문화재단에서 낸 클럽지원공모를 접하게 되었어요. 클럽의 활동범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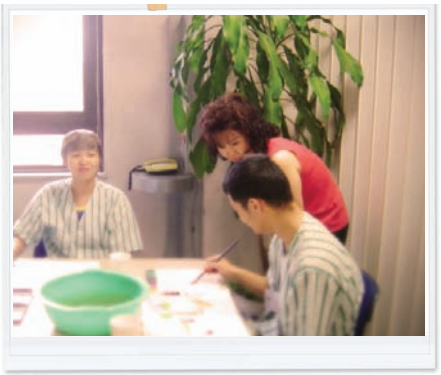
그녀는 꼭 그 돈을 받아서 클럽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전시도록을 챙기고, 구비서류들을 갖추어 재단에 갔더니 1차 서류심사를 거치면서 2차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말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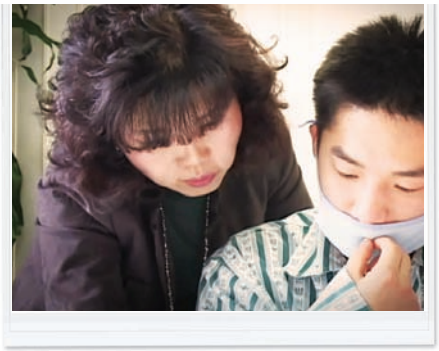
면접관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대해 그녀는 뭔가 뭉클한 느낌이 들면서 마치 두 번째 인생의 관문을 통과하는 인터뷰 같았다고 회상한다.
“너무 떨려서 그때 면접관이 누구였는지 생각도 안나요. 그런데도 팔랑팔랑 얘기를 잘 했던 거 같아요. 그게 끼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 어딘가에서 강한 욕구가 있었나 봐요.”
그녀는 바라던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율 갤러리에서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수채화 전시회를 가졌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율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데, 갑자기 재단의 이 종덕 사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전시회에 재단에서 가장 높은 분이 오셨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 클럽이 그만큼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사실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중앙수채화클럽은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제 2의 타이틀을 달았고, 활동에 변화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단연 전시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1년에 여섯 번씩 전시를 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전시를 하면 할수록 그림의 실력도 늘었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성취감이 더해졌다.
특히, 그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라면, 중앙수채화클럽이 다른 클럽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에는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작업을 하는 데에 만족을 했지만 사랑방클럽이 된 이후에는 다른 클럽들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클럽의 현주소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내 자신이 문화예술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기분이랄까요?”





## 내가 더 행복한 미술봉사

그녀에게 이제 그림과 사랑방 클럽 활동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일부가 되었다.
그림으로 인해 클럽 친구들을 만나고, 클럽으로 인해 어떤 조직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어서 더욱 큰 기쁨이 되었다.

중앙수채화클럽은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국군수도병원에서 그림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 주 한 번씩 환우병들을 찾아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사는 얘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그림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술 치료라는 걸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더군요.”
수도 병원의 그림 봉사하는 곳에 가면, 클럽 회원들과 환우병들이 다정하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사이에 두고 마음을 여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그림 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따뜻한 인연이 생기기도 하였다. 2007년 9월의 어느 날, 휠체어를 탄 남자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자는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인 것 같았다.

"그 환우병은 직업군인이었는데, 훈련 중 신경을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부부 둘 다 생활의 의욕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붓을 잡는 대신에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내던 그 환우병은 차츰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손의 움직임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표정도 많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게 되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하반신이 마비된 채 살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삶의 희망이 없었겠죠. 조금이나마 그런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중환자였던 그는 의가사 제대로 인하여 더 이상 그림수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외래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그와는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헤어지게 되니까 많이 섭섭했어요. 그때가 인연의 끝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와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전시회 일정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가 중앙수채화클럽의 작품전시장에 찾아 온 것이었다.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그녀는 너무 놀라 첫 마디를 뗄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부인과 함께 서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했었는데,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한 걸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병원을 나간 그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힘든 재활치료를 감행했으며, 그 결과 마침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했던 작업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구요. 그는 우리들이 함께 그렸던 그림들이 담긴 스케치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그림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는 지금도 가끔씩 문자를 보내온다. 이제 부인의 도움 없이도 정상인만큼 걸을 수 있게 된 그는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느끼는 일상의 즐거움을 그녀에게 문자로 이야기하곤 한다.
"낙엽이 졌다거나 꽃이 피었다는 등의 문자들을 보내와요.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그림같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덕분에 저도 문자를 받을 때마다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예뻐보인답니다.(웃음)"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연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한다.
앞으로 그 인연들과 더불어 그려 나갈 그녀의 화폭에는 어떤 풍경이 놓여있을까.
그녀의 무한한 잠재력이 기대된다.

누드 그리는 할배

## 이관배 (성남누드크로키, 연우회, 6mm클럽)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강의실, 십 여명의 사람들이 강의실에 빙 둘러앉자 가운을 걸친
여자 모델이 들어와 중앙에 선다. 모델은 능숙하게 포즈를 취해 보인다.
사람들은 날랜 손놀림으로 모델의 몸과 근육의 선을 그려나간다.
3분 후, 모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포즈를 취하자 사람들도 재빠르게 스케치북의 페이지를 넘긴다.

빙 둘러앉은 사람들을 따라 시선을 돌리다 어느 한 사람에게 고정된다.
족히 이른 살은 넘어 보이는 그는 여느 젊은이들 못지않은 집중력과 손놀림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1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델이 잠시 자리를 뜨자 조용했던 강의실의 긴장이 깨지며 사람들이 심호흡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 백발의
그도 잠시 연필을 이젤에 내려놓은 채 휴식을 취한다.

이들은 성남누드크로키 회원들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 누드크로키를 한다.
이들 중 3년째 이 시간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 열혈 회원이 있다. 바로 성남누드크로키에서 최고령
이관배 회원. 그는 성남누드크로키 뿐 아니라 사랑방문화클럽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나이는 그리 중요해보이지 않는다.
남들이 클럽 하나를 하기도 힘들다고 할 때 그는 세 개 클럽을 너끈히 소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현재 성남누드크로키, 연우회, 6mm 동호회, 이렇게 세 개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이 들어서 뭐 할 게 있어야지..(웃음)"
그는 단지 나이 들어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
그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

## 그건 꿈이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꿈이었다.

그는 일흔 두 살까지 월급쟁이 회사원이었고, 1남 2녀를 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럭저럭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러나, 그는 무탈하기 그지없는 그럭저럭한 생을 살면서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만큼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런 생각에 빠져들 때면 그는 언제나 닥치는 대로 스케치를 했다.
항상 연필과 수첩을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오랜 습관도 아무데서나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바쁘게 살면서는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구. 돈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명성도 아니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한발짝 뒤로 물러 나니까 그게 뭔지 알게 됐어"
그건 꿈이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꿈이었다.

★ ☆ ★ ☆ ★ ☆ ★ ☆ ★ ☆ ★ ☆ ★ ☆

그는 어린시절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부 미술부에 들어 활동하면서 그는 화가가 되는 꿈도 꾸었었다.
하지만 그건 그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빌어먹을 환쟁이가 될 거냐며 붓을 다 부러뜨리고 파렛트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 시절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다가는 큰 일 난다고 생각하던 때였지. 나도 아버지를 꺾을 자신이 없었어. 따를 수밖에... 정말 그 순간부터 붓질을 딱 그만뒀어"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그는 경주마가 눈가리개를 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충실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나, 꿈도 포기한 채 달려온 수십 년이 어느 순간 정지해버렸다.
언젠가는 힘겨운 인생 달리기도 멈출 때가 있으리라 생각 못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막막함이 떠올려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말 막막했다. 흔해빠진 말이지만 막다른 길에 부닥친 느낌이랄까.

"남들보다 난 더 오래 달렸지. 일흔 두 살까지 일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 그렇게 달렸나 싶게 맥이 풀려.. 생활도 갑자기 여유로움이 생기니까 무료하기 짝이 없더라구"
그때 떠오른 것이 그림이었다.
"아, 이제 그림을 그릴 때가 왔구나, 생각됐어. 그러자 행복해졌어. 먹먹했던 가슴이 확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다시 그림을 그리며 찾아간 곳이 바로 유화를 그리는 연우회.
은퇴 후 몇 년간 혼자서 그림 그리기를 시도했지만 너무 오래간만에 붓을 잡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그림을 보지 않고 살아와선지 '그린다는 것 자체'가 왠지 낯설고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았다.
"일흔 두 살 노인네 받아줄까 했는데, 너무 편하게 대해주더라구. 며느리 또래의 회원들과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점점 편해졌어. 그림이 사람을 이어주니까. "

연우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그는 그림에 더 자신이 생겼다.
그 자신감으로 새로운 장르인 누드크로키에도 도전할 수 있었다.

## 누드 그리는 할배?

"우리 집에 누드 사진이 한 300장 있어.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서 모았지"
인터넷에서 누드 사진만 골라 수집하는 남편을 보고 그의 아내는 처음 많이 놀랐다.
"말은 안했었어도 이 영감이 미쳤나 했겠지.. 한번 상상해봐. 이상한 게 당연했겠지. 80넘은 노인이 누드 사진들을 수집한다는 게"
그런 아내가 이제는 남편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가 그림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필가인 아내 또한 삶의 에너지를 느끼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했고, 좋은 피사체를 찾아서 더 많이 다녀야 했으며,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다.

“늙은 남편, 늙은 아버지가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아내와 자식들은 너무 좋아해.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어렸을 때 기대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식들도 좋은거야”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내 말고도 또 있다. 바로 연우회 배기민 회원.

배기민 회원은 이관배 회원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척 따른다. 얼마 전부터 이관배 회원을 따라 누드크로키를 하고 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무언가에 몰입하고,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관배 선배님 추천으로 시작했는데 하기를 너무 잘 했어요”
그림이라면 정말 의기투합이 잘 되는 백발의 친구들. 이들은 클럽 활동을 하면서 인연 맺게 된 친구들이 생에 가장 큰 선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법학교수와 내로라하는 기업의 CEO까지 지낸 배기민 회원은 사랑방 친구들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지금까지 친구들 참 많았어, 학교 친구들, 일하면서 만난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그런데, 사랑방 친구들은 같이 있으면 그저 즐겁고 행복해"

이 말에 이관배 회원도 덧붙여 얘기한다.
"일개 월급쟁이었던 내가 어떻게 대기업 CEO까지 한 사람과 친구를 먹을 수 있었겠어(웃음)"
그러자 배기민회원은,
"선배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으면 말로 하세요... 하하하"
한바탕 웃음 끝에 이관배 회원이 다시 말을 잇는다.
"사랑방에서는 계급장이 없잖아.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어"

##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며칠 후, 이관배 회원을 다시 만난 곳은 성남문화원 2층에 있는 6mm 연습실.
거기서 그는 회원들과 함께 프리미어 영상편집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따로 강사는 없지만, 각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먼저 기능을 익힌 사람이 다른 회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도 역시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럼에도 그의 눈빛과 열정은 나이를 무색케했다.
"그림과 또 다른 재미가 있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잖아"
세상을 겪을 만큼 겪은 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그리면 그릴수록 점점 더 새롭게 느껴지는 세상. 그는 그의 영원한 꿈인 그림 속에 세상을 더 제대로 담고 싶어 영상을 통해 세상을 늘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참 좋아요. 무엇보다 사랑방에는 내 꿈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웃음)"

이제 그는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꿈을 향해 더 나아갈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두렁두렁, 문화 울타리 치자.

## 문정숙 (풍물굿패 두렁)

"무신 깽깽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느그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
75년 성남으로 이주하면서 처음 들은 말이란다.
"야, 이렇게 무서운 데서 어떻게 살까, 앞이 막막했죠"
그러나 지금까지 34년째 성남을 떠나지 못한, 아니 이제는 떠나라고 해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 풍물굿패 두렁 클럽지기 문정숙 회원이다.

구 성남시청 삼거리 대로변에 있는 민예총 건물 2층에서는 늘 장구소리가 들린다. 그곳은 터사랑 청년회와 풍물굿패 두렁이 함께 쓰는 아지트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장구를 들고 회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다. 장구채가 북편과 채편, 양편의 가죽을 두드릴 때마다 오동나무 몸통은 매번 다른 소리를 낸다. 허이, 허이, 하는 장단이 섞인 장구 소리에 맞춰 어깨가 통.통. 들썩여진다.

그녀는 장구 중에서도 설장구를 한다. 설장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가락의 으뜸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풍물패에서 가장 으뜸 자리에 있는 장구라는 의미다.
그녀가 성남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성남을 사랑하게 된 마음은 항상 이 설장구 가락과 함께 했다.
"옛날에는 성남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쫓겨 왔다는 피해의식에, 궁핍한 생활에, 거칠 수밖에 없었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죠. 다 들어 먹고 막다른 길에서 성남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좀 살다보니까 그들의 인정이 보이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의 울타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녀의 풍물굿패 이름은 '두렁' 이다. 논두렁 밭두렁 할 때 그 '두렁' 이다.
그녀는 '성남두렁' 을 만들고 싶었던 거다.

## 신산한 삶에서 성남 가족이 되기까지..

하지만, 그렇게 성남두렁을 만들기까지 그녀의 삶도 성남의 다른 이들처럼 무척이나 신산스러웠다.
텐트공장, 옷공장, 기술이 없다보니 시다란 시다는 다 해본 것 같다.
“당장 굶어죽을 판에 네 명의 자식을 키우려면 장구채 대신 바늘을 들 수 밖에 없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건 무용과 장구뿐이었는데.. 갑자기 바느질을 하며 살려고 하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죠”

원래 그녀는 무용가였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용을 했다. 당시 전후(戰後교) 시대 교육무용의 일인자로 꼽혔던 윤석운 선생에게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선생이 하회 별신굿을 발굴하여 무용계에 처음 선보일 때 그녀는 선생의 가르침을 몸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내 무용계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그녀의 나이 열아홉 살 때였다.

그 뒤로도 십년동안 무용계에서 괴팍하기로 유명한 선생과 함께 다양한 일을 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전위예술과 같은 마음으로부터 몸을 자연스럽게 해방시키는 시도를 했고, 그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한국무용은 물론 발레 스페인 인도 무용 등을 접목시켜 독특한 무용세계를 선보였다. 그녀는 또, 무용대학 재학시절 정읍의 김병섭 선생을 찾아가 설장구를 사사받아 무용과 설장구를 접목하는 시도도 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서였나. 무용계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더욱이 그녀의 선생이 무용계에서 인심을 잃으며 그녀 또한 푸대접을 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런 건 버틸 수 있었다. 그런 이들이 다수라고 해도, 여전히 그녀의 무용을 알아봐주는 소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그녀에 대한 선생의 비난이었다.
"십년동안 자신을 따랐던 제자가 빛을 보게 되는 게 싫었나봐. 선생님은 내가 당신의 자리를 가로챘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더군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승냥이처럼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무용계에 염증이 난 그녀는 화려한 무대를 포기하고 교육자의 길로 돌아섰다. 펄벅재단의 명성원, 풍문여고 등에 재직하면서 선생으로서 이름을 날린 그녀는 명동에서 신식 무용학원을 차리며 남부럽지 않은 재산도 쌓을 수 있었다.
그 시절 결혼도 했다. 당시 무용과 연극을 접목해 꽤 이름을 날린 예술가였던 김성규가 바로 그의 남편이다.
"그 땐 부족한 게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 같아요. 남편이 예술가보다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예술은 돈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친정집 재산 갖고 사업이란 사업을 다 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손을 대는 사업은 족족 망해갔다. 그도 그럴 것이 무용과 예술만 하고 살던 사람들이 무슨 사업 수완이 있었으랴. 운도 안 따라줬다. 그들이 양계장 사업을 하면 닭들이 다 죽어가기도 했다.
"아직도 생생해요. 68년 한 해 동안만 현금으로 14억, 76평 66평 집 두 채를 날려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누구 보증 서줬다가 재산 또 날리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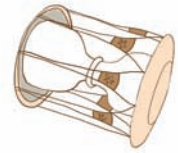
부자가 망하면 3년 먹고 산다고, 친정집의 남은 재산으로 딱 5년을 서울에서 버티다가, 그마저 바닥이 나버리니 갈 곳이 없었다. 그때 내몰리듯 찾아든 곳이 바로 성남이었던 거다.
성남으로 이주한 후에 무용이든, 장구든 돌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무용 밖에 모르며 안일하게 살았던 삶에 미안해서라도 이 악물고 치열하게 살아야 했다.

♥ ♥ ♥ ♥ ♥ ♥ ♥ ♥ ♥ ♥

## 두렁두렁~ 신명나는 놀판을 만들자

과거 삶의 터전을 무참히 철거당한 쓰라린 원망에 가슴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탓인가, 성남사람들은 정말 다들 눈 돌릴 틈 없이 열심히 살았다. 그들의 동네는 점점 난민촌을 벗어났고, 다세대주택들이 줄줄이 서면서 오늘의 동네들이 형성되었다. 살기가 좀 풀리니 사람 사는 정도 생겨났다.

"30년 전 우리 아이 학교 학부모로 만난 사람들을 지금까지 친목계로 만나요. 서울에서 살았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죠. 그 정도로 인심이났어요"
성남시민 문정숙으로서, 그녀도 점점 기반을 다졌고, 사는 형편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니 슬슬 가슴속에 스멀스멀하는 뭔가가 생겼다.



“그동안 착실하고 성실하게 일만 하고 살았지 무슨 재미가 있었을 리 없잖아요. 나도 그랬고, 성남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죠.. 신명나는 삶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신명나는 삶. 그랬다. 30년이 넘게 성남에 터를 잡고 살아오면서 신명나게 놀 판이 없는 게 무척 아쉬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지인들의 공연을 도우며 무용 안무를 다시 시작하고 장구채도 다시 손에 들었다. 때마침 중원구청에서 여성사회교육부 강의를 해달라는 제의를 해왔다. 이어서 수정구청, 태평구청에서도 강의가 시작됐다. 얼쑤, 무미건조하던 생활에 추임새를 넣고자 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장구를 가르치며 그녀는 2001년에는 그들과 함께 풍물굿패 두렁을 창립했다.

“먹고 살만하다다는 게 진정으로 풍요로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정신이 풍요로워야 그게 진짜지.
성남 시민으로서 이웃들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판을 벌이고 싶었어요”

당시 성남 사람들은 문화공연을 공짜로 보여준다고 해도 보러오지 않을 만큼 문화와 거리가 멀었다. 그런 그들과 함께 문화라는 울타리를 새롭게 치고 싶었다.
끼리끼리만 즐기는 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고 그들에게 뭔가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판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남한산성에서 6년 째 열리고 있는 ‘두렁’의 신명풀이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돈도 없고, 기획력도 없으니,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요? 1장짜리 팜플렛을 만들지 못해서 아주 곤란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했어요. 몇 월 몇 일 이면 꼭 그 자리에 가서 볼 수 있는 공연이라는 인식을 시키자. 그렇게, 두해 세 해 하다 보니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구요”
처음에는 자신이 성남시민들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성남 시민들이 두렁을 찾아오더란다. 두렁은 그렇게 성남에 문화울타리를 치겠다는 꿈을 조금씩 실천해나갔다.

## 클럽회원 한명 한명이 다 즐거운 사랑방이 됐으면..

두렁에 대한 소문이 성남문화재단까지 들렸는지 2006년 재단 관계자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사랑방 문화클럽을 만드는데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다. 좋다 싶어, 가봤더니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뜻으로 클럽 활동을 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너무 반갑더라구요. 두렁처럼 풍물패도 여럿 있었고, 다양한 문화 장르 클럽들이 있었어요. 놀라웠어요. 알게 모르게 성남에 이렇게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구나..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녀는 얼떨결에 사랑방문화클럽 첫 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정말 열심히 해서 사랑방문화클럽의 자리매김에 기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나, 다른 운영진들이 다들 아마추어였고, 기획에도 경험이 많지 않으니 결과가 의욕에 미치지는 못한 거 같았다. 많이 아쉽게 1년이 흘러, 그녀는 다시 평범한 클럽회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 애정이 깊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도 있다.

“전 회원이 사랑방 단체 티셔츠를 입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2천원짜리 티셔츠에 싸구려 도시락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일단 평범한 회원 한명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한마당을 만드는 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예요”

이러한 생각에 미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각 클럽들 회원들이 아마추어에다 주부나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랑방문화클럽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뜻 나설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거다. 더구나 아직까지 사랑방에 대한 정보가 클럽지기들 중심으로만 전달되어 회원들은 클럽지기들의 뜻에 따라 무슨 의미인줄도 모르고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걸판지게 판을 열어놓으면 그 기회에 회원들끼리 얼굴도 트고, 사랑방이라는 동질감도 나누고,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얼마나 좋겠냐는 거다.

“사랑방이 정말 잘 돼서, 성남의 문화울타리를 꼭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두렁처럼 하나의 클럽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로는 부족해요. 모든 클럽이 머리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열정을 모아야 성남에 언젠가는 문화울타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상상해보세요 사랑방이 만들어놓은 문화울타리 안에서 성남 사람들 모두가 마음껏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잖아요! (웃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 백만기 (블루마운틴 보이스)

"임종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아쉬워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미뤄두었던 아주 사소하고 소박한 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작은 희망의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닫지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백만기였습니다"

FM분당방송을 통해 매주 책을 읽어주고 있는 백만기 회원. 그의 방송을 듣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관해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임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그는 결코 무거운 사람은 아니다. 그는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며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즐겁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에 있어 순간 순간,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음악. 다양한 음악 장르 중에서도 블루그래스라는 컨트리 풍의 음악이다. 블루그래스, 한글로 번역하자면 푸른 잔디. 그가 사랑하는 음악은 이름처럼 푸른 잔디 같은 풋풋함이 살아있다.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라 '보이스' 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백만기 회원이 함께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의 이름은 '블루마운틴 보이스.'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만큼은 초로의 자신을 벗고 그는 순수함에 흠뻑 빠져든다.

##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와 친해지면 한번씩 받게 되는 물음 하나가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그들은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오래 사는 거지 뭐'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아니면 남들이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면 십중팔구 '글쎄' 하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종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왔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큼 허탈 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끔 자문하고 삶의 궤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게 되물어보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 역시 항상 자신에게 그걸 묻고 있는 중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우리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스트에이지 즉 태어나서 25세까지는 학문을 배우는 나이고, 세컨드에이지인 25세에서 50세까지는 가정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나이이며, 50세 이후의 써드에이지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키워준 사회에 봉사하며 임종을 준비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는 40세가 되면서 이에 관한 생각을 굳히게 되었고, 50세에는 그 동안 돈을 벌기 위해 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써드에이지를 준비하리라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50세가 되니 그동안의 생각처럼 사표를 던지기란 쉽지 않았다. 더욱이 금융업계에서 30년 가깝게 일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그가 고작 50세에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남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50세가 되고도 3년을 그냥 보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자문하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53세가 되던 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는 모 국책은행의 고위 간부로 있던 후배 한명이 찾아와 며칠 후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은퇴하신 신부님들을 모시고 남은 삶을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후배는 아이들도 6명이나 되어 자식들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변의 만류가 많았다. 하지만 그 후배는 그의 뜻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그 후배의 영향 탓이었나, 그도 몇 개월 후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던 일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준비에 착수했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일은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연주를 하며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복합문화공간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 속에서 그 역시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며 가끔 콘서트도 열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 그가 찾은 블루그래스 음악과친구들

그때부터 그가 친구들과 하고 있는 음악은 바로 블루그래스 음악이다. 블루그래스 음악은 30년대 후반 미국 켄터키 주 태생의 빅 먼로가 시작한 음악인데, 켄터키 주에 블루그래스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음악 이름도 블루그래스로 지어졌다고 한다.

“이 음악은 연주를 하는 사람이 노래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악기를 배제하고 순수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순수하고 소박한 스타일이 그 특징입니다. 일본만 해도 동아리가 천 개가 넘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저희를 비롯하여 십 여개클럽에 불과한 실정이지요. 동호인 여러분들의 좀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악기의 구성은 밴조, 만돌린, 기타, 피들, 콘트라베이스 와 도브로, 이렇게 어쿠스틱 현악기로만 이루어진다. 그는 같은 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석용기씨와 이웃에 살면서 성당 교우로 모임에서 만나며 블루그래스 음악을 접하게 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멤버 4명으로 출발했다가 이후 피들(바이올린)과 밴조를 영입하여 지금은 모두 6명의 멤버가 활동 중이다.

블루마운틴 보이스 멤버들은 모두 직업도 다르다. 콘트라베이스를 맡은 그는 FM분당방송의 방송진행자로 활동하고 있고, 기타를 연주하는 석용기씨와 만돌린을 맡은 신승균씨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도브로를 치는 김현배 씨는 올해 초까지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퇴직을 한 후 요즘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들을 맡고 있는 황수자씨는 전업주부이며 베네스토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있다. 그리고 밴조를 연주하는 미국인 새논 모렐은 현재 경북대학교 영어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각자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음악으로 뭉치면 어린 아이들처럼 신나게 마음이 하나가 된다.

## 관심사가 비슷하면 가까워진다.

음악 앞에서는 소년처럼 풋풋해지는 중년의 남자들.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에 있어서는 서로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관심사가 비슷하면 쉽게 친해집니다. 클럽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요. 사랑방문화클럽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는 사랑방문화클럽 초대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랑방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됐다. 그렇게 사랑방을 아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현업에서 은퇴를 하면 그동안 지녀왔던 인간관계가 희미해지다가 나중엔 끊어지기도 합니다. 은퇴이후의 남자가 고독해 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라고 하지요. 이를 테면 악기 연주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사진 찍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취미활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인간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새삼스레 느껴지기도 하지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고 그걸 통해 동지를 만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돈, 명예,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사실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기리 전원마을의 밤에는 칠흙 같은 어둠을 뚫고, 아주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 음악소리를 좇아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천진하게 미소 짓고 있는 백만기 회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미소가 부럽다면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사랑방문화클럽 영상

#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길을 열다!

# part 4

사랑방오케스트라의 한사람 한사람이 함께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음악 앙상블처럼
화합과 사랑이 점점 커지는 사랑방문화클럽.

사랑방문화클럽이 펼쳐나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성남은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길을 열다!

## 프롤로그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의 모임이 있다네.
그 모임에는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주인공이
없다네.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 준다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울창한 문화의 숲
을 거닐며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짙은
문화의 향기를 느끼는 아름다운 시민
문화도시.

# 사랑방문화클럽 개요

'문화 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시민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러한 신념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성남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시민문화클럽들을 중심으로 사랑방 문화클럽을 탄생시켰습니다.

사랑방이 만남, 예술, 소통이 공존하는 공간이듯이, 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 시민들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통해 더불어 즐기는 공동체의 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사랑방 히스토리

2006년부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사랑방문화클럽은 지난 3년간 홈페이지를 구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하여 다양한 문화클럽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각 클럽에 필요한 다양한 클럽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랑방 문화클럽의 기본 육성에
먼저 힘썼습니다.

또한, 성남시 곳곳의
문화공간자원을 발굴하여
사랑방 문화클럽들을 위한
학습 및 발표의 장을 확보하고,
문화통화시스템을 활용하여
클럽회원들과 공유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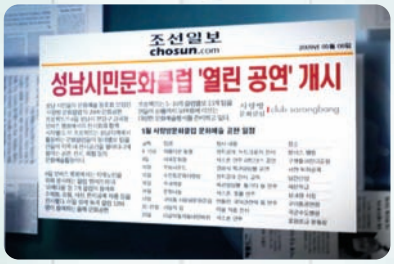
공연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등 내실을
다지기 시작한 사랑방문화클럽은 문화공헌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세우고, 동네 속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시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열어 성남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 1단계 3년의 성과

2006년부터 시작한 1단계의
지난 3년을 마무리하고,


조선일보
chosun.com
성남시민문화클럽 '열린 공연' 개시

새로이 2단계 5개년의 문을 연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에게 2009년은 그 동안의 성과를
더욱 크게 성장시킨 한 해였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은 곧
성남 시민 스스로의
성장이었습니다.

문화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클럽의 회원 한 명에서부터 사랑방 운영 위원진에 이르는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보다 창조적인 조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방 조직의 창조적인 역량이 지역문화 공헌 사업을 이끌게 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지역문화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사랑방 클럽들의 더욱 튼실해진 역량을 바탕으로, 매 공연, 매 행사마다 질적으로 더욱 향상됐습니다.

이제 사랑방 문화클럽은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브랜드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9년 세계문화클럽포럼 개최는 선진국의 자생적 문화클럽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문화도시 성남과 그 주체인 사랑방 문화클럽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예술 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창조가들이 탄생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 예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방 문화클럽이 있기
때문이라네

## 사랑방문화클럽,
## 우리들의 이야기 1

### 사랑방에서는
###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어요!

– 김병량 교수 인터뷰 –

사랑방 문화 클럽은 시민으로서, 도시의 성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사, 교수, 녹색환경운동연합 대표라는 타이틀을 벗고 색소폰을 든 사람.

"가끔씩 사람들이 그래요. 때로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진짜 교수 맞으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스스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동료 교수들이 부러워해요.
카멜레온 회장님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힘. 이것이 바로 문화가 주는 힘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랑방은 변화의 무대가 됩니다.

## 사랑방문화클럽,
## 우리들의 이야기 2

### 사랑방은 해방구다

– 박병준 선생님 인터뷰 –

일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분출하고 싶은 다양한
문화 욕망들이 내재해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문화해방구 역할을 해주는
사랑방문화클럽

"결혼한 남자들 대상으로 가장
하고 싶은게 뭐냐, 락밴드를
하고 싶다는게 4위였어요.

남자들 가슴 속에는 지르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행스럽게 우리는 현실에
옮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즐겁죠."

첫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과연 삶의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꼬리를 물며 찾아올 때, 자신
있게 즐거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사랑방문화클럽입니다.

## 사랑방문화클럽,
## 우리들의 이야기 3

사랑방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 안윤환부위원장님 인터뷰 –

회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와 예술은 사랑과 행복이라는 또 다른 향기가 되어 사회에 퍼져나갑니다.

사랑방문화클럽과 더불어 세상을 화폭에 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림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준다고 느껴요. 그림 그리면서 승화가 된다고 할까요.

그림 지도해주면서 환우병들이 마음이 치료됐으면 좋겠고,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싶어요, 결국 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 즐기는 문화공동체, 그 안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 울타리가 되어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남의 중심에 바로 사랑방문화클럽이 있습니다.

## 사랑방문화클럽,
## 우리돌의 이야기 4

**사랑방을 통해서 성남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

– 이정구선생님 인터뷰 –

세대나 환경을 떠나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음악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전하는 지휘자.

"콜래식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보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노인네들에게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돼.."

음악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더욱 열심히 연주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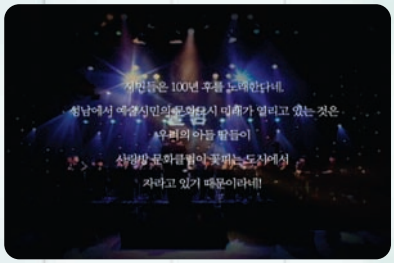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70이 넘은 우리들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보람 있어요"

# 에필로그

이들이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음악 앙상블처럼,

화합과 사랑이 점점 커지는 사랑방문화클럽

사랑방 문화클럽이 펼쳐나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성남은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시민들은 100년 후를 노래한다네.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그 미래가 열리는 것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랑방 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네!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정관

# Contents

제1장 ..... 총 칙
제2장 ..... 회 원
제3장 ..... 총 회
제4장 ..... 임 원
제5장 ..... 운영위원회
제6장 ..... 활동기구
제7장 ..... 보 칙
부 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이하 본 단체)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단체는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클럽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의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❶ 문화예술 클럽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❷ 문화예술 클럽들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
❸ 상호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
❹ 문화예술 클럽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❺ 기타 본 모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원칙)
본 단체는 제2조(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운영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어느 개인이나 정당 등의 특정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소재)
본 단체의 주사무실은 성남에 두며 지역과 해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 제6조(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클럽에 소속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7조(권리)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클럽지기(대의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8조(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탈퇴)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
❶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 또는 활동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경고, 견책, 정직,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❷ 제1항에 규정한 징계 중 제명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클럽지기(개별클럽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대의원)에게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장 총회

### 제11조(구성)

❶ 총회는 개별클럽에 속하는 회원들이 추천하는 클럽지기(대의원)로 구성되며, 개별클럽에 속해있는 정회원은 합의하에 1인의 클럽지기(대의원)를 추천하여야 한다.
❷ 클럽지기(대의원)는 개별클럽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제12조(소집)

❶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한다.
❷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❶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❷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❸ 운영위원회 혹은 대의원 1/4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❹ 기타 중요 사항

### 제14조(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

❶ 임원은 운영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운영위원 6인까지 둘 수 있다.

❷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전체임원의 과반수 미만의 인원수만큼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❶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한다.

❷ 운영위원회에는 성남문화재단의 담당 부서장과 담당직원이 옵서버로 참석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소집)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개최되는 총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❶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

❷ 각 활동단위의 운영 규칙에 관한 인준

❸ 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

❹ 기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활동기구

### 제20조(활동기구)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
❶ 운영위원회는 성남문화재단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실무TF를 둘 수 있다.
❷ 실무TF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1인과 성남문화재단 주무부서장이 공동 TF장을 맡고 기획팀, 운영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등 필요에 따른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 제21조(전문위원)
각 활동기구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2조(자문위원)
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3월 7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출범일로부터 시행한다.

##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을 이끈 사람들

| | |
|---|---|
|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 | **임기용** |
| 부위원장 | **안윤환, 유명헌** |
| 운영위원 | **김기덕** |
| | **김숙자** |
| | **김임진** |
| | **박옥례** |
| 기획팀장 | **원도희** |
| 팀원 | **이상훈** |
| | **박미영** |
| 성남문화통화 팀장 | **박순덕** |
| 교육분과장 | **박상규** |
| 공연분과장 | **박옥례** |
| 장터분과장 | **한유덕** |

#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책들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2006년 10월 발간

## 사랑방문화클럽발전방안연구

2006년 12월 발간

## 사랑방 21세기 다시 시작하다

2007년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 일상과 예술 그리고 사랑방문화클럽

2008년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 책의 내용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sncf.or.kr)자료실** 또는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www.clubsb.or.kr)자료센터**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96343-2-4
9 788996 343024
03600

사람의 방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